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제3354호 2015년 12월 2일 수요일

Economy

[산업] 재즈를 즐기는 구본무 06

코스피 2023.93 (+31.96)

코스닥 691.95 (+3.57)

금리(국고채 3년) 1.79 (-0.01)

환율(원·달러) 1157.80 (-0.20) 〈1일〉

수뇌부 유임 속 신진세력 손잡은 'JY의 발탁'

삼성 세대교체 시작됐다

삼성 2016년 정기 사장단 인사

관리보다 기술에 방점 둔 인사 단행

바이오·면세유통 육성 '제2도약' 의지

'이재용의 삼성'을 구축하기 위한 세대 교체가 시작됐다. 안정 속 변화를 추구하면서 신진세력 기용을 통해 '관리'보다 '기술'에 방점을 둔 삼성 사장단의 인사가 단행된 것.

삼성은 1일 사장 승진 6명, 대표 부사장 승진 1명, 이동·위촉업무 변경 8명 등 총 15명 규모의 2016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내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말 단행한 2015년 사장단 인사에선 3명이, 2014년 인사에선 8명의 사장이 승진 했다. 올해 승진자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 늘었다.

재계는 올해 삼성 경영진의 대규모 교체를 예측해왔다. 올해 들어 사실상 그룹 경영 전면에 나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체제 아래 실질적인 첫 인사라는 점에서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급격한 변화보다는 미래전략실과 주요 경영진을 유임하면서 인사폭을 최소화하고 안정을 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삼성전자 주요 대표이사의 경우 겸직을 떼고 기존 사업에 변화를 줄 리더를 새로 발굴하고 바이오와 면세유통 등 신규사업의 새 수장도 임명하면서 미래 먹거리 육성에 의지를 담았다.

◆ 미래전략실 강화…삼성전자 3톱 유지

삼성은 2016년 사장단 인사에서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차장 등 수뇌부를 그대로 유임했다. 변화보다 안정을 택해 그룹을 이끌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여기에 법무팀장 성열우 부사장과 인사지원팀장 정현호 부사장은 각각 사장으로 승진해 미래전략실의 위상은 더 강화됐다. 미래전략실이 승계작업, 사업재편 등 이재용 부회장 체제를 다지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 왔던 만큼, 앞으로도 이 역할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도 권오현 부회장, 신종균·윤부근·김현석 사장 등 주요 부문 대표를 그대로 유임 조치했다.

대신 권오현 부회장이 겸직하던 삼성종합기술원장에 정칠희 부원장을 사장으로 승진 발탁했다. 윤부근 사장과 신종균 사장 역시 겸직하던 생활가전과 무선사업부장 자리를 각각 후배 경영진에게 물려줬다.

신임 무선사업부장에는 2014년 무선사업부 개발실장으로 부임해 갤럭시S6, 노트5 개발을 지휘하며 갤럭시 성공신화의 한 축을 담당한 고동진 부사장이 내정됐다. 윤 사장이 맡던 생활가전부장은 사장급이 아닌 부사장급이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사장과 신 사장이 각 부문을 총괄하도록 하되 실무에 밝고 기술안목을 갖춘 경영자들이 이들을 보좌하도록 한 것이다.

삼성 관계자는 "제 2도약을 위한 조직 분위기 일신 차원"이라며 "윤 사장과 신 사장이 그간의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장기 사업전략 구상, 신규 먹거리 발굴 등 보다 중요한 일에 전념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주사격 삼성물산, 3인+1 체제로

사실상 지주회사인 삼성물산도 변화보다 안정적인 인사를 했다. 삼성물산은 당초 총괄 대표 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설이 부각됐다. 〈관련기사 4면·4면에 계속〉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지하철公 통합 암초

노조 임금인상수용 땐 1조 더 들어

서울시 지하철 공사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통합작업에서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가 최대 암초로 떠올랐다.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방안을 수용할 경우 향후 10년간 1조원을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1일 오후 3시에 열린 지하철 양공사 통합 노·사·정 회의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공사의 노동조합은 연 270억원의 임금인상과 4조 2교대 근무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통합혁신을 위한 조직인사분야 설계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양공사의 임금지급 기준을 노조가 요구하는 기준에 적용하면 연간 약 270억원의 통합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또 기존 3조 2교대 방식의 근무를 4조 2교대로 전환할 경우 대규모의 신규 인력을 추가해야 한다. 현재는 3조 2교대 인원을 재배치해 4조2교대를 시범운영 중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정식으로 4조 2교대 근무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전산망 통합작업'과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비용 산정에서 제외하더라도 노조의 입장을 반영하면 통합 후 10년간 최대 1조1140억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통합과정에서 추가발생하는 비용이 예상치를 넘을 경우 추가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것이다.

서울시 측은 최대한 노사갈등이 없는 방향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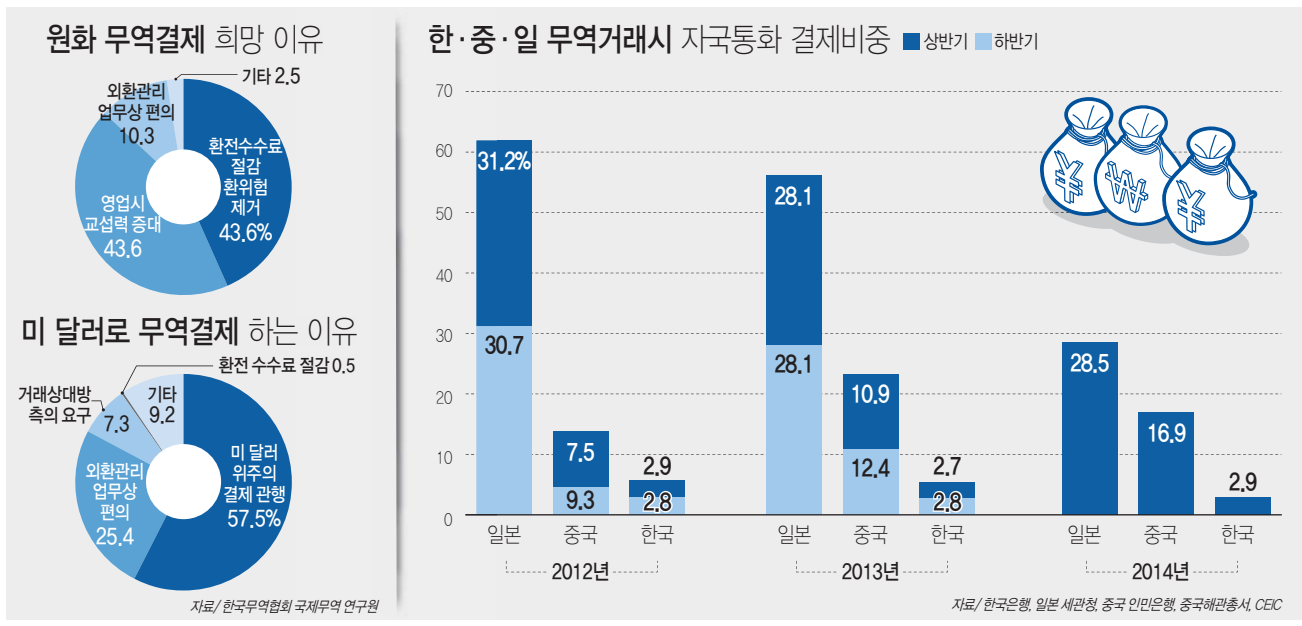
/김성현 기자 minus@

위안화 3대 기축통화 편입됐는데… 갈 길 먼 원화 국제화

내년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오픈

수출대금 원화비중 고작 '2.5%'
중소기업 환율위험 그대로 노출

정부, 원화 해외거래 제한 완화땐
자금조달비용 절감 등 파급 효과
환투기 방지시스템은 구축 필요



'금융 시장 규모=상, 금융 인프라=하'.

지난 2003년 세계적 컨설팅 회사 맥킨지가 발표한 국내 금융산업 성적표다. 대만 타이베이와 함께 서울은 최하위권에 속했다.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달라졌을까.

영국계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지난 9월 발표한 올해 글로벌금융센터지수(GFCI)에서 서울은 6위를 차지했다. 서울의 GFCI는 지난해 9월 조사에서 8위였다가 올해 3월 7위로 상승한 데 이어 이번에 한단계 더 올라선 것이다. 우리의 경쟁 상대인 홍콩(3위) 등과는 여전히 격차가 있다.

한국 경제가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원화 국제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갈 길 먼 원화 국제화

수출액 세계 6위(5727억 달러), 수입액 세계 9위(5255억 달러), 무역 규모 세계 8위(1조982억 달러). 지난해 대한민국의 무역 성적표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3·4분기 중 결제통화별 수출입' 자료에 따르면 수출기업들이 대금을 원화로 받는 비중은 2.5%에 불과하다. 수입할 때 원화로 지급하는 비중도 4.7%에 그친다.

이는 국제 교역시장에서 원화 지위를 짐작케 한다.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한국 무역 거래에서 원화 결제 비율이 2~3% 밖에 되지 않아 무역을 하는 중소기업 등은 환율 위험에 지나치게 노출된 상황"이라며 "중국 등 가까운 나라에서라도 지금보다 원화가 더 통용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꼭 원화를 국제화할 필요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원화의 위상 강화와 국제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환투기 세력'에 원화가 공격받을 수 있고 정부의 환율 통제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해외에서 원화를 못 빌리게 하고 거래를 제한한 이유가 바로 투기꾼들의 공격 때문"이라며 "특히 환율 변동성이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투기꾼들의 공격에 외환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원화가 해외 거래 제한에서 풀리면 결제와 투자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그동안 원화는 일부 무역 거래에서만 사용될 뿐 자본 거래와 원화 예금 등에서 제한돼 반쪽짜리 통화 역할에 그쳤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도 낮출 수 있다. 임준환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내 대기업이 달러가 부족해 해외에서 달러 펀딩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채권발행 시에는 단기 환율변동성이 기업재무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원화 국제화 부진으로 기업들이 보이지 않는 비용(코스트)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 여건은 충분, 지속 추진해야

원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기 위한 기본조건은 이미 갖췄다.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은 'AA-'(S&P)이다. 현재 3대 신용평가사에서 모두 AA- 이상의 등급을 받은 나라는 한국,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사우디 정도에 불과하다.

국채의 해외 수요도 꾸준하다.

우리나라 원화도 국제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내년에 그 첫발을 내디딘다.

한·중 양국 간 합의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국 상하이에서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이 열리면 원화가 해외에서 직접 거래되는 첫 사례가 된다.

상하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에 직거래시장이 열린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위안화의 빠른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점진적으로 원화 국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화의 통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상하이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거래 추이를 지켜본 이후 제한된 범위에서 다른 지역에서의 원화 직거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

한줄 News

▲ 정치·사회·국제

"100조원 신(新)시장과 50만개 일자리 창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30일(현지시간) 기후변화 정상회의(Leaders Event) 전체회의 1세션에서 10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서 "더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면서 우리나라의 '2030 에너지 신산업 육성전략'에 따른 성과 목표를 이같이 제시했다.

▲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1일 자정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가운데 여야가 치열한 '법외심의'를 벌이고 있다. 만일 여야가 물밑 협상에 성공해 2일 본회의에 수정안이 제출될 경우 정부 원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들은 1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제안한 '혁신 전당대회' 개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동을 가졌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을 방문할 때 90일까지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테러 위험으로 인해 강화될 방침이어서 검토 방향에 따라 한국인도 미국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 **중국**의 수도 베이징 일부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의 40배에 육박하는 등 중국 수도권이 5일째 심각한 수준의 스모그로 고통받고 있다.

산업

▲ **삼성**은 1일 사장 승진 6명, 대표 부사장 승진 1명, 이동·위촉업무 변경 8명 등 총 15명 규모의 2016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내정해 발표했다. '이재용의 삼성'은 변화 대신 안정을, 매니지먼트보다는 기술을 택했는 평가다.

▲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이달 중순 세계 각국의 현대·기아차 해외법인장을 불러 모아 신흥시장 위기에 대한 해법 모색에 나선다.

▲ SK telecom **SK텔레콤**은 1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허가를 신청하는 서류들을 접수했다. 이에 경쟁사업자 KT와 LG유플러스 등은 이번 합병은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공룡 사업자'의 탄생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부동산

▲ 중국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기반통화(바스켓) 편입 결정은 국내 기업에 중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도 있지만 당장에는 큰 기대를 할 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3·4분기 중 결제통화별 수출입' 자료에 따르면 수출기업들이 대금을 원화로 받는 비중은 2.5%에 불과하다. 수입할 때 원화로 지급하는 비중도 4.7%에 그친다.

▲ 최근 카카오뱅크와 K뱅크 컨소시엄 두 곳이 국내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에 예비 인가를 받자 **금융위원회**가 이달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를 허가하면서 은행권은 본격적인 비대면 금융거래 도입에 나서고 있다.

▲ 올해 주택 시장에는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 세 번이나 이사했다는 '맹모삼천지교' 열풍이 불었다. 최근 2년 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100건 이상 늘자 학군과 가까운 **학주 근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유통·라이프

▲ 어묵과 떡볶이가 서울지하철 1~4호선 역사에서 사라진다. **서울메트로**가 상가관리규정을 개정해 역사 내 금지업종에 어묵·떡볶이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 **이영애**가 '사임당'으로 10년의 공백을 깨고 복귀한다. 이영애는 사임당은 예술가이자 워킹맘이라고 분석하고 자신과 닮았다고 말했다.

▲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통합에 난항이 예상된다. 노조가 요구하는 방안을 수용할 경우 1조원 이상 추가비용이 예상돼서다. 노조는 현재 3조 2교대 근무를 4조 2교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SKT '주파수 경매' 보름전 증권신고서에 반영

"신규투자 해서라도 2.1GHz 지킨다"

경매가 최고 1조원 예상
각 통신사 전략 등 변수

이동통신업계의 관심이 주파수 경매가격으로 쏠리는 가운데 최근 SK텔레콤이 2.1㎓ 대역 주파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달 19일 공시한 증권신고서를 닷새 후 정정하면서 "2016년 주파수 경매 방안과 관련한 미래창조과학부의 발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SK텔레콤은 "만약 우리 회사가 사용 중인 20㎒ 구간을 부분 경매하는 것으로 정부가 결정하고, 경매를 통해 다른 사업자에게 할당한다면 투자금 등이 사업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우리 회사는 해당 주파수 구간의 고객에게 제공하던 LTE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 대체 주파수 대역을 확보해야 한다"며 "신규 투자비를 추가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30일 미래부가 2.1㎓ 대역 주파수 100㎒ 폭 중 20㎒ 폭만 경매에 부치겠다고 발표하기 일주일 전에 작성됐다.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항목이 원론적인 수준으로 구성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SK텔레콤의 공시 추가 내용은 2.1㎓ 대역 주파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SK텔레콤이 20㎒ 폭에 대한 부분 경매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일부 시나리오가 드러난 듯 하다"며 "LG유플러스와 수싸움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파수 경매안이 결정되면서 통신업계 관심은 경매가격이다.

지난 2013년 9월 LTE 주파수 경매에서 KT는 치열한 눈치작전 끝에 1.8㎓ 대역 주파수 15㎒ 폭을 9001억원에 확보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내년 주파수 경매 대금이 최저 7000억원, 최고 1조원 안팎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초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 경매가격, 각 통신사의 주파수 전략 등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유안타증권의 최남곤 연구원은 "이번에 경매되는 주파수가 통신사로서 의미있는 대역이긴 하지만, 2년 전 KT가 가져간 1.8㎓ 만큼은 아니다"며 "구체적인 가격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내년 경매 금액이 천정부지로 솟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대신증권의 김회재 연구원은 "2.1㎓에서 SK텔레콤이 롱텀에볼루션(LTE)으로 사용 중인 대역은 SK텔레콤이 이미 장비를 어느 정도 구축했기 때문에 당사의 활용도가 가장 높다"며 "KT는 이 대역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인접대역을 사용 중인 LG유플러스의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이 대역이 인접대역이긴 하지만, 주요 대역은 아니기 때문에 SK텔레콤의 낙찰 가격을 올리려는 시도 정도로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투자증권의 양종인 애널리스트도 "통신 3사 모두 1.8㎓ 대역과 2.6㎓ 대역에서 이미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1㎓ 외에도 4개 대역에서 추가로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2016 수능 채점 분석

문과는 '영어·수학', 이과는 '영어·과탐'이 당락 가를 듯

영어 만점자 비율 0.4%
난이도 높아 변별력 상승

국어 A형과 영어, 수학 영역이 모두 지난해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수능 사상 가장 쉬웠다'는 분석이 나왔던 영어는 만점자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난이도가 크게 상승했다. 따라서 상위권 변별력은 지난해보다 나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 A형과, 탐구영역에서는 과학탐구영역이 어렵게 출제됐다. 따라서 인문계 수험생은 영어와 수학이, 자연계는 영어와 과탐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어 인문계 변수될 듯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일 2016학년도 수능 채점을 분석한 결과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 A형 134점(0.8%), 국어 B형 136점(0.3%), 수학 A형 139점(0.3%), 수학 B형 127점(1.65%), 영어 136점(0.4%)이라고 밝혔다.

특히 영어는 만점자가 0.4%에 그치면서 난이도가 급상승했다. 영어 영역은 지난해 만점자가 3.37%로 역대 수능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쉬웠고 6월과 9월 모의평가에서도 모두 만점자 비율이 4%대였다. 영어의 표준점수 최고점 역시 지난해 132점에서 136점으로 4점 상승했다.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보는 수학 A형 역시 지난해보다 어렵게 출제됐다. 수학 A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39점으로 지난해 수능때 131점보다 8점이나 올랐다. 반면 인문계 상위권 수험생들이 주로 보는 국어 B형은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출제됐다. 이 때문에 인문계에서는 영어와 수학이 당락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자연계는 과탐 변수

사회탐구는 비교적 쉽게, 과학탐구는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탐구에서는 법과 정치, 한국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생활과 윤리 등 6과목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1등급 커트라인이었다. 이는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으로 떨어진다는 의미다. 특히 한국사는 만점자가 10%를 넘을 정도로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탐구에서는 생명과학 I과 물리 I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생명과학 I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76점으로, 표준점수가 가장 낮은 물리 II(63점)보다 13점이나 높아 최상위권 수험생들에게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반면 물리 II는 1등급 비율이 11.56%나 되고 2등급은 아예 없는 등급 '블랭크' 현상이 발생했다. 즉 1문제만 틀려도 바로 3등급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김희동 소장은 "수학과 영어 영역이 지난해보다 어렵게 출제돼 지원전략을 수립하는데 핵심과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minus@

수능 점수, 얼마나 돼야 SKY 인기학과 갈 수 있을까?

주요대학 인기학과 표준점수
인문 530점·자연 520점 내외

2016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주요대학의 인기학과에 지원하려면 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가 인문계는 530점 내외, 자연계는 520점대 중반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발표된 수능 채점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입시업체들이 분석한 결과 서울대 의예과의 경우 대성학원은 526점, 종로학원은 527점, 이투스는 531~533점, 유웨이는 528점을 지원 가능 점수로 예상했다. 서울대 경영대는 대성학원이 534점, 종로학원 538점, 이투스 536~538점, 유웨이가 535점으로 예상했다.

또 서울대 사회과학계열은 대성학원이 533점, 종로학원 537점, 이투스 534~535점, 유웨이가 534점으로 예상했다. 서울대 국어교육은 대성학원 532점, 종로학원 534점, 이투스가 530~532점, 유웨이가 532점으로 관측했다.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는 대성학원 520점, 종로학원 519점, 이투스는 522~523점, 유웨이는 521점으로 예상했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가 발표된 1일 서울 양천구 목동 종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2016년 정시모집 배치참고표 예비판을 보며 선생님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세대에 대해 대성학원은 경영 531점, 정치외교 529점, 영어영문 528점, 의예 525점, 치의예 522점으로 예상했다. 종로학원은 경영 536점, 정치외교 534점, 영어영문 530점, 의예 526점, 치의예 523점으로 예상했다. 이투스는 경영 534~536점, 정치외교 531~533점, 영어영문 529~530점, 의예 529~531점, 치의예 527~528점으로 예상했다.

고려대에 대해서 종로학원은 경영 536점, 정치외교 534점, 영어영문 529점, 의과대학 524점, 사이버국방 520점 등으로 예상했다. 이투스는 경영 533~534점, 정치외교 529~531점, 영어영문 527~528점, 의과대학 525~527점, 사이버국방 519점으로 예상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

한국 증시에 中風… 수출주 투자심리 개선 기대

한중 FTA·위안화 SDR편입 부정·긍정적 요인 혼재에도 중장기적 국내 기업엔 호재

〈업종별 한중 FTA 영향〉

자료=하나금융투자

섹터	한중 FTA 영향			한중 FTA 영향 코멘트	한중 FTA 수혜 종목
	수혜	중립	부정		
인터넷/게임/미디어/엔터/레저	◎			영화, 드라마 등의 공동제작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컨텐츠 업체들의 중국진출이 활발해질 전망. 게임은 저작권 강화에 따라 중국 퍼블리싱 활발해 질 것. 음악은 저작권 보호 강화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 예상	CJ E&M / SM NEW / 제이콘텐트리
화장품	◎			화장품 브랜드 업체들 영향 제한적. FTA에서 화장품 제품은 철폐 제외. 원료와 부자재 가격 경쟁력 제고로 수출 증가 기대. 중국 현지 생산 브랜드/ODM 업체들 원재료(원료와 부자재) 수입 단가 하락으로 원가 경쟁력 제고 가능	아모레퍼시픽 / 코스맥스 / 연우
음식료		◎		중국 현지 생산 브랜드/ODM 업체들 원재료(원료와 부자재) 수입 단가 하락으로 원가 경쟁력 제고 가능. 한국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유업체(매일유업, 빙그레)는 현재도 무관세 혜택 수혜 상황으로 FTA발효에 따른 영향 제한적	CJ프레이웨이
섬유의복	◎			중국 생산 아웃소싱 비중 높은 한국 패션 기업. 한국 직수입 상품으로 중국에서 브랜드 전개하는 업체들의 가격경쟁력 제고 예상. 다만, 최근 중국 인건비 상승에 따라 아웃소싱처 동남아로 이전 중으로 FTA 관세 철폐 혜택 제한적. 중국 진출 업체들의 경우 한국 직수입보다 중국 내 생산 시스템 구축하고 있어 FTA발효에 따른 영향 제한적	베이직하우스 / 제로투세븐
화학/정유		◎		석유제품의 18%, 석유화학제품의 45%가 대중국 수출. 관세 인하로 수출개선 기대. 기존 국산 업스트림 석유화학제품 2%, 다운스트림 제품 5.5~6.5% 관세 적용. 정유업체 보다는 석유화학 업체들이 수혜	LG화학 / 롯데케미칼
운송/유틸리티/상사	◎			관세보다는 교역량 증가로 인한 수혜 기대. 육상운송/해상운송보다는 항공운송 매출 증가 기대. 2006년 6월부터 중국 해남성 및 산둥성과 항공자유화 협정 체결. 한국-중국 취항노선은 지속적 확대 추세. 국내 여행업체들의 중국 여행업 라이센스 획득 가능성 높아지면서 아웃바운드 영업가능 기대. 중국 아웃바운드 수요 2010년부터 지속 증가 추세. 향후 한국 여행사의 직접영업 이후 가속화 전망	대한항공 /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 하나투어
철강/비철금속		◎		기존 중국산 철강제품의 국내 수입 무관세('94년 다자간 철강협정)로 국내 유입 효과 미미. 저가범용재인 형강과 열연제품 일부만이 단기간에 관세 철폐. 아연도강판 등 고급제품은 양허에서 제외. 저가범용재의 경우 중국내에서도 공급과잉 심각한 수준. 관세 철폐만으로 가격경쟁력 개선 기대 어려워	POSCO / 현대제철

한국 증시에 중국발 훈풍이 불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빠르면 연내 발효될 전망이다. 여기에 위안화가 11월 30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되면서 증권가는 수혜주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따지느라 분주하다.

1일 증시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중 FTA가 수출주 중심의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수혜주로 운송, 여행업종 등을 꼽았다. 위안화의 SDR편입은 중장기적으로는 위안화 표시 자산의 보유 수요 증가에 따른 자본 이탈 우려 등 부정적인 요인과 신흥국 전반의 통화가치 상승 등 긍정적인 요인이 혼재할 것으로 봤다.

◆한중 FTA, 서비스 등 수혜

FTA가 기본적으로 '윈-윈' 전략을 토대로 체결된다는 면에서 한·중 FTA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산업별로 차별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국내 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보기술(IT)·가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한류로 한국 선호도가 높아진 다른 서비스, 소비재 기업에도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對)중 수출이 한국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수출주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나아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신한금융투자 김영환 연구원은 "한국의 대중 교역비중(수출 26%, 수입 16%)은 미국(수출 11%, 수입 11%)과 EU(수출 9%, 수입 10%)를 크게 앞선다"면서 "그만큼 관세 철폐에 따른 수혜 규모도 크다"고 말했다.

업종별 옥석 가리기를 해보면 운송,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의 수혜를 예상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경환 연구원은 "가장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인터넷·게임·미디어, 화장품, 운송, 섬유의복 등 내수·서비스업종"이라면서 "화학과 철강업종의 경우 FTA 체결 이후 관세 인하가 점진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 관광회사가 중국 내에서 한국이나 제3국으로 여행할 관광객을 모집하는 행위를 허가하는 방안을 중국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여행주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도 FTA를 반긴다. 개성공단 생산품목의 대부분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아 역대 FTA 중 가장 많은 품목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정보기술(IT) 업종의 경우 중국보다 비교우위에 있지만 현지 생산이 많고 관세율이 이미 낮다는 점에서, 철강도 중국 내 공급과잉 상태인데다 철강재에 대한 관세가 매우 낮거나 없어서 각각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양국 모두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대부분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장기 관세철폐 대상으로 묶어 큰 혜택을 보기 어렵게 됐다.

◆위안화 SDR 편입, 기대반 우려반

시장은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에도 주목한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위안화 표시 자산의 보유 수요 증가에 따른 자본 이탈 우려 등 부정적인 요인과 신흥국 전반의 통화가치 상승 등 긍정적인 요인이 혼재할 것으로 봤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SDR 편입이 당장 중국 실물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에 긍정적일 이유는 크지 않다"며 "한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SDR 편입이 당장 글로벌 자금 흐름을 바꾸는 이슈도 아니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처럼 글로벌 운용사의 지역별 자금 배분이 바뀌는 이슈도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편입 결정이 위기인 동시에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윤항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위안화의 신뢰도가 높아진 가운데 중국 자본시장이 더욱 개방될 경우 해외 민간투자자의 위안화 표시자산 수요가 늘어나고, 이는 한국 자본시장에서 투자자금의 이탈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SDR 편입으로 중국 A주의 MSCI 신흥시장(EM) 편입 가능성이 한층 커지는 가운데 실제로 신흥시장 편입시 한국에서 적어도 40억달러(5조원) 이상의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위안화 환율 변동성 확대로 중국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될 경우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크게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달러 중심의 금융시스템 변화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국내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윤창용 연구원은 "위안화 허브로서 역할이 강화되면서 중국 자금의 직접적인 한국 유입, 중국과의 무역·금융 거래비용 감소, 중국의 내수 팽창에 따른 수혜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수출 확대를 비롯해 여행, 레저, 미디어·콘텐츠,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서 수혜도 커질 전망이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中 관광객으로 북적대는 화장품 매장 지난 30일 한국과 중국 자유무역협정(FTA)비준 동의안 의결로 화장품, 게임 등의 업종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화장품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위안화 SDR 편입, 결국 한국경제 도움"

현대경제硏

환율 변동에 유연한 대처 가능

중국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기반 통화 편입이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위안화 강세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기업의 대중국 수출 물량 결제가 대부분 달러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가 대안으로 부각되면 달러 편중에서 벗어나 환율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란 관측에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1일 "위안화의 SDR 편입은 중장기적인 이슈다. SDR 편입이 위안화 약세의 단기적 흐름을 반전시키기는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위안화의 가치가 높아지면 우리나라는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중국과 통화스와프까지 체결한 상황에서 외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주옥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신흥국이 미국 달러화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서 "이는 달러화의 변동성이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엄치성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본부장은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 물량 결제는 90% 이상이 달러로 이뤄진다"며 "위안화가 SDR에 편입되면 위안화 결제가 늘어나 달러화 변동에 따른 피해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안화가 달러화나 유로화와 함께 시장에서 국제통화로 대접받기 위해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 제고나 위안화 관련 통계의 투명성 확보 등 중국 정부의 선행 과제가 남아 있다. /이정필 기자 roman@

국내 핀테크 공략하는 차이나 머니

카카오뱅크·K뱅크 내년 초 인터넷전문은행 선보일 예정
텐센트·알리페이, 주주로 참여

12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한 중국인이 은행에서 새로 인출한 100 위안 짜리 신권을 들어보이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15년판 100 위안 지폐를 이날부터 시중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20여개국과 양자간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고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편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위안화의 국제화에 공을 들여 왔다. /연합뉴스

중국 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중국 기업인 텐센트와 알리페이가 참여한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이 예비인가 관문을 통과했다. 이달 중에는 중국 광다(光大)은행의 서울 지점 설립 본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에 카카오뱅크와 K뱅크를 선정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두 곳은 금융위의 본인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인터넷전문은행을 선보인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 컨소시엄에는 텐센트와 알리페이라는 중국의 거대 기업이 각각 참여해 있다. 텐센트와 알리페이는 이미 중국 내 인터넷은행 시장에 진출해 사업 경험을 두루 갖춘 상태다. 여기에 탄탄한 자본력까지 더해져 국내 금융 시장에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 내 맞수 텐센트·알리페이

우선 텐센트는 약 6억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모바일 메신저 '위챗'과 약 8억명이 이용하는 메신저 'QQ'로 유명한 중국의 정보기술(IT)기업이다.

텐센트가 올해 1월 출범시킨 인터넷전문은행 '위뱅크'는 '중국판 카카오'로 불린다.

위챗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고객의 활동내역, 온라인 구매내역 등을 분석한 뒤 신용평가에 적용하는 새로운 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했다.

위뱅크는 최근 1조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해 소액 대출과 투자상품을 확충할 계획을 밝히는 등 중국 내 경쟁사인 알리바바와 바이두를 견제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알리페이는 지난해 8억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한 중국 최대 온라인 금융 결제서비스 업체다. 알리페이의 모기업이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그룹 역시 지난 6월 자회사 앤트파이낸셜을 통해 인터넷은행 '마이뱅크'를 선보였다.

◆중국 자본, 국내 진출 신호탄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주주로 참여한 텐센트와 알리페이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력 부족, 시행착오 등 문제점을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호영 카카오 부사장은 "텐센트의 위뱅크 고객과 카카오뱅크의 고객의 결제 제휴를 통해 낮은 수수료의 해외송금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약 4% 지분을 갖고 있는 텐센트와 해외송금 서비스 등에서 시너지를 낼 계획을 밝혔다.

김인회 K뱅크 컨소시엄 단장은 "알리페이 유저가 4억명 이상이고 중국 온라인 결제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며 "알리페이와 같은 역량 있는 주주와 함께 해외 인터넷은행 사업자로 사업모델을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텐센트와 알리페이의 국내 금융시장 진출을 신호탄으로 중국 은행들도 잇따라 국내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0월 중국 광다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예비인가를 내린데 이어 이달 16일쯤 본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광다은행에 대해 본인가 결정을 내리면 국내에 진출한 중국계 은행은 총 6곳이 된다. /김보배 기자 bobae@

사장 승진자

고동진 사장

·1961년생 / 서섹스대 기술정책 석사/성균관대 산업공학 학사
·14.12~현재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개발실장
·11.12~14.12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기술전략팀장
·00.03~06.04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유럽연구소장
·95.01~00.02 삼성비서실 인력팀
·93.02~94.12 삼성전자 인사팀
·88.11~90.06 삼성전자 통신㈜ 연구운영팀
·84.01~88.10 삼성전자 개발관리과

정칠희 사장

·1957년생 / 미시간주립대 물리학 박사/KAIST 물리학 석사/서울대 학사
·12.12~현재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부원장
·10.01~12.12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장
·09.02~09.12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Flash 개발실장
·08.06~09.01 삼성전자 S.LSI사업부 LSI개발실장
·93.08~97.01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NVM 제품팀
·79.01~87.12 삼성전자 제품기술과

고한승 사장

·1963년생 / 노스웨스턴대 유전공학 박사/캘리포니아대 생화학 학사
·12.03~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
·11.07~12.02 삼성전자 바이오사업팀 담당임원
·08.06~11.06 삼성전자 신사업팀 담당임원
·04.08~07.09 삼성종합기술원 Bio&Health Lab장
·00.08~04.08 삼성종합기술원 바이오연구 기술자문
·96.12~97.12 Amersham Pharmacia Biotech사

한인규 사장

·1960년생 / 텍사스大 경영학 석사·서울大 경영학 학사
·11.12~현재 호텔신라 운영총괄
·10.12~11.12 호텔신라 호텔사업부장
·08.10~10.12 호텔신라 경영지원실장
·07.01~08.10 호텔신라 신규사업부장
·02.01~07.01 호텔신라 기획담당
·98.01~02.01 삼성물산 경영진단팀
·94.09~97.12 삼성물산 구주본사
·92.06~93.03 삼성물산 비서실
·86.06~92.05 삼성물산 섬유원가관리과

성열우 사장

·1959년생 / 서울대 경영학 학사
·14.05~현재 삼성미래전략실 법무팀장
·06.03~14.04 삼성미래전략실 법무팀 담당임원
·05.02~06.03 삼성구조조정본부 법무실 담당임원
·89.01~97.02 대구, 인천지방법원 판사
·87.01~88.12 사법연수원 18기
·84.09~86.12 영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82.08~84.08 세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81.03~81.12 한국수출입은행

정현호 사장

·1960년생 / 하버드대 MBA 석사/연세대 경영학 학사
·14.05~현재 삼성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장
·11.06~14.04 삼성미래전략실 경영진단팀장
·10.12~11.06 삼성전자 디지털이미징사업부장
·07.01~10.12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지원팀장
·03.02~07.01 삼성전략기획실 전략지원팀 담당임원
·95.07~00.11 삼성전자 국제회계그룹장 국제금융그룹장
·83.01~88.06 삼성전자 국제????

'갤럭시' 고동진 '반도체' 정칠희 등 기술인력 우대

부회장 승진없이 6명 사장 승진
경험·노하우 갖춘 인물 전진배치

대표 부사장으로 임명된 차문중

삼성그룹이 2016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부회장 승진자 없이 사장만 6명 승진 발령했다. 인사폭은 크지 않았으나 '성과있는 곳에 보상있다'는 신상필벌의 원칙과 기술인력 우대와 차세대 사업에 대한 육성의지를 그대로 드러냈다.

◆기술개발 인력 중용·신상필벌 원칙

삼성은 무선이나 반도체에서 핵심제품의 개발을 진두지휘한 인물을 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갤럭시의 총책임을 맡은 고동진 사장은 갤럭시S6, 갤럭시노트5와 삼성페이의 개발을 진두지휘한 공로를 인정받아 IM부문 사장으로 발탁돼 무선사업부를 맡는다.

고 사장은 기술기획 업무를 시작으로 정보통신부문의 유럽연구소장을 역임한 후 무선사업부로 자리를 옮겨 상품기획, 기술전략 등 다양한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 지난해 연말 무선사업부 개발실장으로 부임해 갤럭시S6, 갤럭시 노트5의 개발을 주도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함께 보안 솔루션 녹스(KNOX), 삼성페이 등 솔루션, 서비스 개발에도 폭넓은 안목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삼성은 무선사업의 제2도약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칠희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장 사장은 삼성전자의 핵심사업인 반도체 부문에서 LSI개발실장, 플래시개발실장, 반도체연구소장 등 개발 외길을 걸으며 반도체 신화 창조의 주역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지난 2012년 연말 종합기술원 부원장으로 부임해 기술 개발에 정진한 정통 엔지니어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그린 인광소재 확보, SUHD TV향 퀀텀닷(QD) 소재 개발, 스마트폰용 지문인식 알고리즘 개발과 같은 선행기술 개발을 주도했다.

여기에 지난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를 맡아온 고한승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켜 새 먹거리인 바이오 산업에 무게를 실었다.

고 사장은 미국 노스웨스턴대 유전공학 박사 출신으로 바이오 벤처기업 근무 후 지난 2000년 종합기술원에 입사해 바이오헬스Lab장 등을 역임하면서 삼성그룹의 바이오 개발을 이끌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초창기 사업 전반을 기획하고 바이오시밀러 사업 진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경영자로서의 능력을 검증받았다. 고 사장은 불모지에서 일군 바이오사업을 삼성의 대표 주력사업으로 조기 성장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인규 호텔신라 면세유통사업부문 사장은 지난 2011년 연말부터 호텔신라 운영총괄을 맡아 싱가포르 창이공항 면세점 진출, 미국 면세기업인 DFASS 인수 성사,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사업권 획득 등을 주도한 인물이다. 삼성물산 관리, 경영진단팀 출신으로 2002년 호텔신라로 옮겨 신규사업부장, 경영지원실장, 호텔사업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풍부한 경험 갖춘 사장단 전진배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사장단도 이번 인사에서 대거 전진 배치됐다.

삼성전자 인사팀장, 삼성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장, 삼성종합화학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정유성 사장을 삼성SDS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삼성전자에서 풍부한 업무경험과 경영안목·인사부문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람이 자산'인 SDS의 인적 경쟁력을 제고하며 글로벌 ICT 기업으로 도약시킬 것을 주문했다.

홍원표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실장 사장은 삼성SDS 솔루션사업부문 사장으로 보임돼 삼성SDS가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솔루션 사업을 조기 전력화하고 솔루션&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 임무를 부여받았다.

삼성전자 디지털AV사업부장, 메모리사업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삼성SDS 대표이사를 맡아 온 전동수 사장은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장으로 위촉됐다. 전 사장은 세트와 부품 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HW 및 SW는 물론 솔루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의 차세대 먹거리 사업인 의료기기사업에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 미래 신수익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6월 입사한 차문중 삼성전자 고문은 미국 시카고대 박사 출신으로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대 경제학 교수를 거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근무한 인재로 삼성경제연구소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내정됐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이서현 사장 '패션사업' 총괄한다

〉〉 1면에서 계속

삼성물산 '전문경영인+오너' 형태
이재용·이부진 등 오너家는 유보

그러나 기존 4인 대표이사 체제에서 3인 대표이사 체제로 바뀌었다. 그동안에는 윤주화 패션부문 사장, 김봉영 리조트·건설부문 사장, 최치훈 건설부문 사장, 김신 상사부문 사장 등 4명이 각자 대표이사 역할을 했지만 이 가운데 윤주화 사장만 삼성사회공헌위원회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신 삼성물산 패션부문 경영기획담당 사장과 제일기획 경영전략담당 사장을 겸직하던 이서현 사장이 삼성물산 패션부문장 사장을 맡게 됐다.

대표이사는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대신 오너가인 이 사장이 패션부문장을 단독으로 맡게 되면서 '전문경영진+오너' 형태의 구조로 바뀐 셈이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삼성물산 리조트건설부문 경영전략사장을 계속 겸직한다.

삼성생명 등 금융 계열사의 경영진 교체도 없었다. 모두 임명된 지 오래 되지 않아 굳이 바꿀 이유가 없었다는 분석이다.

실적 악화로 부실화된 삼성중공업의 박대영 사장, 삼성엔지니어링의 박중흠 사장 등도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됐다. 새로운 사람을 기용하기보다 현재의 수장들이 어떻게든 이 작업을 마무리해 달라는 게 재계 안팎의 해석이다.

◆ 오너가 승진은 올해도 유보

오너일가의 승진은 올해도 없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물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 경영기획담당 사장 역시 승진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재용 부회장의 승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다. 부친 이건희 회장이 투병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회장직 계승이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서현 사장은 겸직하고 있던 제일기획 경영전략담당을 내려놓고 삼성물산 패션부문장을 맡는 등 변화가 생겼다. 앞으로 패션사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란 예상이다.

삼성은 기술을 우대하는 인사원칙과 바이오와 면세유통 등 미래 먹거리나 신규사업을 챙겨 새로운 도약을 꾀하는 데도 소홀하지 않았다.

지난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를 맡아온 고한승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켜 삼성그룹의 차세대 성장사업 중 하나인 바이오 분야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인규 호텔신라 총괄부사장 역시 사장으로 승진해 면세유통사업부문장을 맡게 됐다.

삼성은 부사장 이하 2016년 정기 임원인사를 오는 4일쯤 회사별로 마무리해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미 기자

부진 삼성重·엔지니어링은 유임

'경영정상화' 힘 실어준 듯

대규모 적자로 위기를 겪고 있는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수장이 삼성그룹 인사에서 유임됐다. 삼성이 그동안 고수해 온 신상필벌 원칙에 반하지만 이번 두 대표의 유임은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이후 경영 정상화를 위해 경영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이 1일 발표한 사장단 인사 결과에 따르면 교체설이 제기됐던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과 삼성엔지니어링 박중흠 사장이 유임에 성공했다.

삼성중공업은 조선업계의 부진 속에 올 3분기 누적으로 1조531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도 해외 사업 부실로 같은 기간 1조5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면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다. 내년 11월까지 1년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1개월 무급순환휴직이란 초유의 카드를 꺼내 들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하지만 삼성그룹은 이번 인사에서 계열사 중 가장 실적이 부진한 양사의 사장에 대해 유임을 결정함으로써 향후 경영정상화에 힘을 실어줬다.

또 업계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전문가 출신의 수장이 안정적으로 중공업을 이끄는 게 나을 것이라는 판단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12월 사장으로 취임한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은 지난 1977년 엔지니어로 입사해 약 40년간 회사에 몸담고 있는 현장 전문가다.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해양플랜트 수주물량의 대부분은 박대영 사장 취임 이전에 계약이 이뤄진 것. 이후 박 사장은 적극적인 추가정산(Change Order) 반영 등을 통해 손실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삼성엔지니어링도 비슷한 이유로 풀이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최근 재무안정화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3500억원 규모의 상일동 사옥을 매각하기로 한데 이어 내년 3월까지 1조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추진 중인 경영 정상화 작업을 완료하라는 그룹 수뇌부의 주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유네스코에 빚진 '교과서 3000만부' 60년만에 갚았다

朴 대통령 유네스코 방문

역대 대통령 첫 공식방문

"인류의 평화·번영 위해 교육·과학·문화 분야 협력"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의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본부를 방문해 60여 년전 유네스코에 빚진 초등학교 교과서 3000만 부를 몇 배나 되는 선물로 보답했다.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유네스코 본부에서 특별연설을 통해 "앞으로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네스코와 함께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과거 유네스코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던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와 같은 폭력적 극단주의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평화의 방벽을 세우기 위해선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현지시간)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 보코바 사무총장과 함께 성악가 조수미의 공연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개도국 소녀와 아프리카 교육 지원

박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제시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구상을 유네스코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구상은 개발도상국(개도국) 소녀들에 대한 의료, 보건 서비스 강화, 기초교육 기회 확대, 사회경제적 자립도 제고를 위해 2016부터 2020년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를 통해 네팔과 라오스 등 15개 개도국에 총 2억 달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박 대통령의 구상과 일맥상통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의 '렛 걸스 런(Let Girls Learn)' 구상을 연계하기로 미국측과 협의를 마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아프리카 국가에 교과서 개발 및 보급을 포함한 직업기술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 계획도 설명했다. 바로 아프리카 부흥 교육(Education for Africa Rise) 프로젝트다. 정부는 이 사업에 내년부터 5년간 1180만 달러를 지원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아프리카 교육 혁신사업에도 올해부터 2017년까지 600만 달러를 지원한다.

박 대통령은 기후변화와 민주주의, 평화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 달성에 기여하는 세계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에도 협력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에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문화 분야 협력 액션플랜도 제시

박 대통령은 과학과 문화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과학 분야에서 박 대통령은 15개 개도국을 상대로 내년부터 5년간 KOICA를 통해 2억 달러를 지원하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구상'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물안보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 연구·교육 센터'를 대전에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박 대통령의 이번 유네스코 본부 방문은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의 초정으로 이뤄졌다. 프랑스 각계 주요 인사와 파리 주재 외교단, 유네스코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해 박 대통령의 특별연설을 경청했다.

연설 직전에는 지난 2003년 유네스코 평화예술인(Artist of Peace)으로 위촉돼 활동중인 성악가 조수미씨의 축하공연이 열렸다. 박 대통령은 연설 후 '한·유네스코 자발적 기여에 관한 MOU(업무협약)'와 '청소년 발달 및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 설립협정' 체결식에 참석한 뒤 보코바 사무총장과의 오찬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유네스코 일정을 끝으로 파리 방문을 마무리하고 다음 순방국인 체코 프라하를 향해 떠났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JP모건의 자녀 취업 로비

'아들과 딸' 프로그램 운용 中서 홍콩증시 기업공개 열풍 때 해당기업 간부 친인척 대거 고용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 JP모건이 '아들과 딸들'이라는 이름의 조직적인 취업 로비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1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JP모건은 중국에서 홍콩증시 기업공개(IPO) 열풍이 불었을 당시 자사가 주관사를 맡은 기업 중 4분의 3에 대해서 해당 기업 간부들의 지인과 친인척을 고용했다. 또 중국의 권력기관을 비롯한 정치 엘리트들의 지인과 친인척들 역시 고용했다. 채용 규모는 모두 222명에 달했다.

WSJ의 보도는 JP모건이 지난 4월 미국 수사당국에 제출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미국 수사당국은 JP모건의 부패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보고서에는 JP모건이 2004~2013년 실행해 온 '아들과 딸들'이라는 프로그램에 상세히 설명돼 있다. 프로그램 실행 대상이었던 중국 기업과 정치 엘리트의 이름이 모두 담겨 있다. JP모건에 지인과 친인척을 인재로 추천했던 이들은 절반 가량이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당국을 포함한 중국 관료와 국영 대기업의 임원들이었다. 나머지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소수와 JP모건이 IPO를 주관했던 일반기업의 임원들이다.

금융정보업체 딜로직에 따르면 프로그램 실행기간은 JP모건이 IPO 실적이 절정에 달했던 기간과 일치한다. JP모건은 프로그램이 종료된 직후인 2014년부터 IPO실적이 급감했다. 또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에는 홍콩에서 IPO에 뛰어들지 않았다. 프로그램이 IPO 주관사를 따내기 위한 로비용이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JP모건은 홍콩에서 중국을 상대로 '아들과 딸들'이라는 이름의 조직적인 취업 로비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홈페이지 캡처

실제 JP모건은 이 기간에 10억 달러(약 1조1600억원) 이상이 넘는 초대형 홍콩증시 IPO 12개에 주간사로 참여했다. 그 가운데 9개사와 그 모회사 임원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천을 받은 인사는 대부분 인턴으로 채용됐다.

미국 정부는 2년 전부터 해외부패방지법(FCPA)에 따라 JP모건의 광범위한 중국 취업 로비가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FCPA는 미국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이 해외 관료와 국영기업 임직원들에게 부정적인 의도를 갖고 대가성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홍콩 정부도 JP모건의 관행을 조사하고 있다.

중국 정부도 JP모건 명단에 거론된 인사 가운데 최소 두 명을 부정부패 척결의 일환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코스코그룹의 쉬민제 전 부총재는 지난해 부패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쑨자오쉐 중국알루미늄공사 전 회장도 사법 처리됐다. 다만 두 사람의 축출이 JP모건 취업 로비와 관련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송병형 기자

그룹총수가 재즈 콘서트 주최한 까닭은…

LG 구본무, 각국 아티스트 공연에 정·재계 인사 초청
"한일 수교 50주년, 문화교류·경제협력에 도움되길"

구본무 LG 회장(뒷줄 왼쪽 세번째)이 지난 11월30일 서울 역삼동 LG아트센터에서 개최한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 재즈 콘서트에 앞서 가진 리셉션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장대행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뒷줄 왼쪽 첫번째), 재즈 트럼펫터 히노 테루마사(뒷줄 왼쪽 두번째),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뒷줄 왼쪽 네번째), 벳쇼 코로 주한 일본대사(뒷줄 왼쪽 다섯번째) 등과 함께 LG다문화학교 한일가정 학생들로부터 꽃다발을 받는 모습. /LG그룹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재즈 선율로 민간 차원의 한·일 문화예술 교류의 가교 역할에 나섰다.

1일 LG그룹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 11월 30일 서울 역삼동 LG아트센터에서 개최한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 재즈 콘서트'에 한국과 일본의 정치·외교·경제·문화예술계 인사를 초청해 콘서트를 관람했다.

이번 콘서트는 LG아트센터가 민간 차원의 한·일 문화예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양국간의 발전적이고 우호적인 관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개최했다.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재즈 아티스트들이 함께 참여했다.

구 회장은 이날 콘서트에 앞서 가진 내빈 초청 리셉션에서 "LG는 아트센터를 통해 외국의 좋은 공연과 아티스트들을 소개하고 우리 공연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면서 국가간 문화 교류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애쓰고 있다"며 "올해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이해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재즈 아티스트들의 합동 콘서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즈는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열고 자유롭게 어울려 연주하는 음악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도 다양한 민간 차원의 문화 예술 교류를 통해 서로 마음을 열고 소통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지난 2000년 LG아트센터 개관 당시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 공연을 국내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며 기업의 메세나 활동이 다양한 나라들과 적극적인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국가 간의 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LG아트센터는 개관 이래 고급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을 국내 관객에 소개하는 것은 물론, 제3세계 국가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권의 독창적이고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을 국내에 꾸준히 알려오고 있다.

이날 90분간 진행된 '재즈 브릿지' 콘서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재즈 아티스트 8명이 합주 또는 솔로 연주로 다채로운 재즈 레퍼토리를 선보였다. 일본 아티스트로는 일본과 해외에서 활동중인 세계적인 재즈 기타리스트 요시다 지로, 재즈 트럼펫터 히노 테루마사, 일본을 대표하는 재즈 피아니스트 오조네 마코토가 참여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과 한국의 재즈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색소포니스트 이정식, 베이시스트 황호규, 드러머 오종대, 재즈 피아니스트 민경인이 함께했다.

LG는 이번 콘서트가 한·일 문화 교류는 물론 일본 기업들과 민간 차원의 경제 협력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콘서트에는 벳쇼 코로 주한 일본 대사를 비롯한 주한 외교사절단, 한·일의원연맹 김태환 회장대행(새누리당 의원),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그룹 회장) 등 한국과 일본의 정치·외교·경제·문화예술계 초청 인사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또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는 'LG다문화학교' 학생 중 한일가정 학생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MK의 마법 이번에도 통할까

해외 판매 여건 부진 속
현지 맞춤형 마케팅 강조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사진)이 이달 중순 세계 각국의 현대·기아차 해외법인장을 불러 모아 신흥시장 위기에 대한 해법 모색에 나선다.

이번 해외법인장 회의는 중국·브라질·러시아 등 신흥시장 침체, 엔저 등으로 판매 여건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열리는 것인 만큼 회동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정몽구 회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 신차 출시와 현지 맞춤형 마케팅, 현대차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출시를 해법으로 내놓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달 셋째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현대차와 기아차 해외법인장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잇달아 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하반기 지역별 판매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판매 전략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 감소한 645만여 대를 판매했다. 지난 10월까지 현대기아차의 판매량으로 연말까지의 판매량을 추정, 이런 추세라면 올해 사업계획 목표였던 820만대 달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올해 판매 실적 부진은 일본 업체들의 강력한 판촉 공세와 신흥시장 경기침체, 중국 토종 업체들의 저가 공세 등 외부 환경 요인 탓이 컸다.

통상 11월과 12월에 글로벌 판매가 크게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대·기아차의 올해 판매량은 800만대를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내년에도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현지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제품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브랜드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을 이번 회의에서 재차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은미 기자

빛바랜 '무역흑자 사상 최대' 교역 1조弗 실패로 의미 반감

11월 수출액 444억 달러
작년 동기比 4.7% 감소

수출보다 수입 감소로
무역흑자는 최대 기록

중국 경제의 중심지 상하이의 항구에서 화물선들이 드나들고 있다. /연합뉴스

수출입 동반 감소 영향으로 11월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아울러 수출이 11개월째 감소세를 보이면서 '4년 연속 1조 달러' 달성 목표는 사실상 실패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수출액이 44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같은 기간 수입은 340억65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7.6% 감소했다.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지난달 무역흑자가 103억6100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편, 2011년 이후 4년 연속 이어오던 교역 1조 달러 달성이 올해는 어려울 전망이다. 11월까지 교역 수지의 합은 총 8860억 달러로 1조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남은 12월 한 달 동안 1200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올려야하지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지난해의 경우 11월까지 1조48억 달러의 교역 실적을 보였다. 수입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6% 줄어든 341억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1월부터 수출·수입액이 11개월 연속 동반 감소했다.

품목별 수출액 동향을 살펴보면 선박은 지난 10월 해양플랜트 수출을 한 건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전년 대비 63.7%나 감소했다가 11월에는 3척의 해양플랜트를 수출하면서 133.7%로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선박과 함께 무선통신기기가 23.6% 증가해 호조세를 지속했다.

하지만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은 유가하락 및 시설보수로 전년대비 각각 36.3%, 24.0% 감소했다. 신흥시장의 수요가 감소한 자동차(-7.6%), 단가가 하락한 철강(-26.6%), 반도체(-9.6%), 평판디스플레이(-18.3%)와 컴퓨터(-19.6%), 일반기계(-13.7%), 섬유류(-10.7%), 가전(-26.0%) 등도 감소세였다.

신규 주력 품목에서는 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SSD)가 12.4%, 유기발광다이오드(OLED)가 22.8%, 화장품이 50.3% 늘어나는 등 호조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도 주력 시장의 수출 감소세가 이어졌다. 대 중국 수출이 -6.8%를 기록했고 대 미국 수출도 -12.4%로 지난 10월 -11.5%보다 감소폭이 커졌다. 10월 -12.5%로 감소로 돌아섰던 대 EU 수출은 52.5%로 반등했다.

/연미란 기자 actor@

JS대부2015서울금천-00029(대부업)
현금없이 사는 차
(당일출고)
만 20세 이상 누구나 가능
차 + 취.등록세 + 보험료 모두 현금없이 당일 출고!
그리고 추가로 여윳돈 1,000만원도 당일 같이 드려요~ (전국)
저신용자 OK! 무직자 OK! 당일출고 OK!
아시아캐피탈 1833-7475
월00%연34.9%이내(연체이자포함)추가비용無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입니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 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08,9층(가산동,뉴티캐슬)서울 금천구청 경제일자리과02-2627-1312

중기硏 "기술신용대출제도, 근본적 수술 필요해"

'무늬만 기술금융'인 경우 많아
'합성기술금융유동화제도' 시급

금융당국의 기술신용대출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은행이 자발적으로 기술금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술신용대출제도,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으로의 자원배분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2014년 7월부터 기술신용평가에 기초한 여신제도인 '기술신용대출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은행은 '혁신성 평가'를 도입, 기술금융 실적을 40% 반영하면서 기술금융대출은 지난해 12월 말 8조9000억원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44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정책당국의 기대와 달리 은행창구에서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은행은 위험을 피하고, 기술금융 실적을 올리기 위해 기존대출을 기술금융으로 전환하는 등 소위 '무늬만 기술금융'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금융당국은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은행의 기술력 반영 미흡, 현장의 불만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한도증액 없는 대환 및 재약정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등의 미봉책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제도가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은행의 기술금융 대출에 따른 위험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은행이 자발적으로 기술금융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은행의 기술금융 대출 위험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으로 공적 신용보증기관(기보나 신보)이나 개발은행(산업은행)이 은행의 기술금융대출에 따른 신용위험을 인수해 이를 기초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본시장에 유통시키는 '합성기술금융유동화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미란 기자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국민이라면 **누구든**

필요하다면 **언제든**

바라고 꿈꾼다면 **무엇이든**

KB가 있어

국민든든

KB가 국민 곁에서
평생 든든한 금융파트너가 되겠습니다

KB 국민은행 KB 손해보험 KB 국민카드
KB 투자증권 KB 생명보험 KB 자산운용
KB 캐피탈 KB 저축은행 KB 부동산신탁
KB 인베스트먼트 KB 신용정보 KB 데이타시스템

KB 금융그룹

SKT, CJ헬로 인수 서류만 1톤… 공은 정부로

미래부·방통위·공정위에 접수
공정경쟁·이용자 편익 중점심사
허가여부 내년 2월 판가름 예상

KT·LGU+ "지배력 너무 커져"

LG유플러스 박형일 상무가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LG유플러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SK텔레콤은 1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허가를 신청하는 서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주식인수와 합병인가를 함께 요청한데다 허가 항목이 방송과 통신, 기업결합 등에 걸쳐 총 15개에 달하면서 SK텔레콤이 준비한 인가 신청 서류만 사무용 캐비닛 6개, 1t 트럭 1대 분량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일 이사회를 열어 CJ헬로비전 지분 취득 후 내년 4월에 종속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기로 전격 의결했다. SK텔레콤 측은 이에 대해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서 방송과 통신을 융합한 트렌드에 부합해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인터넷기반 방송서비스인 OTT(Over the Top)를 포함한 뉴미디어 시장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는 합병 목적을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이사회 이후 약 1개월 동안 김앤장 법률 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 세종으로부터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따른 법률 자문을 꼼꼼하게 받고, 사업 계획을 다듬은 뒤 마감 기한인 2일에 하루 앞서 당국에 신청서를 전달했다.

인수·합병이 승인되려면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정부의 인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또 이번 인수·합병은 케이블방송과 IPTV업체 간의 결합이라 방송법과 IPTV법도 적용받게 된다. 방통위는 방송통법에 따라 CJ헬로비전이 주체가 되는 인가건에 대해 사전 동의 권한을 갖고 있다. '경제검찰'을 자처하는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도 받아야한다.

미래부 등 정부 당국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꾸려 합병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기한이 최장 90일로 정해져 있어 허가 여부는 내년 2월 안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심사의 관건은 이번 합병으로 인한 경쟁 제한과 이용자 편익이 될 것으로 보인다.

KT와 LG유플러스 등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합병해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공룡 사업자'로 재탄생할 경우 시장 지배력이 갑자기 커져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SK텔레콤의 합병이 성사될 경우 단순히 외형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동통신, IPTV, 초고속인터넷으로 운용하던 결합상품에 케이블TV까지 더해 상품 구성을 더욱 다양화함으로써 유무선 시장을 아우르는 지배력이 배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KT 측은 "금번 인수합병은 내수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두 그룹이 플랫폼과 콘텐츠 영역을 나눠 각각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인수합병은 방송통신 정책 역행, 공정한 시장경쟁 저해, 방송통신산업의 황폐화,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가기 때문에 불허돼야 한다"며 "이번 인수·합병은 공정거래법 제 7조에 의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에 해당한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LG유플러스도 역시 크게 반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주식인수 인가신청과 합병인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양수합병 고시 위반 가능성이 높다"며 "심의기간을 단축시켜 인가조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밝혔다. 또한 "미디어 번들 강화하겠단 SK텔레콤의 의지는 케이블 공짜 끼워팔기 상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해 케이블TV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삼성페이 지문인증 개발' 삼성SDS 올해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영예

안전한 간편 결제 구현 공로

삼성페이의 지문 인증 기술을 개발한 삼성SDS가 올해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을 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제10회 K-ICT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시상식'을 열고 삼성SDS에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여했다.

삼성SDS는 생체 정보로 사용자를 식별하는 표준 기술(FIDO 인증)을 국내 처음으로 상용화하고 올해 8월 이 기술을 삼성페이에 적용해 안전한 간편 결제를 구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내 최초로 액티브X 없는 인터넷뱅킹을 구축한 국민은행, 웹소설 플랫폼을 만든 문피아, '사랑한데이 이벤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기발한 홍보물을 선보인 부산지방경찰청은 국무총리상 수상자로 뽑혔다. /정문경 기자

에너지 생산·거래… 세계 최초 한곳서 관리

KT, '에너지 관제센터' 개소
ICT 접목… 소비절감 극대화

KT는 경기도 과천에 세계 최초로 에너지의 생산·소비·거래를 통합해 관제할 수 있는 KT-MEG 센터(에너지 관제 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기념사를 하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사진 왼쪽)과 에너지 사용현황을 관제하고 있는 KT 직원들. /KT

KT가 경기도 과천에 세계 최초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거래를 통합해 관제할 수 있는 에너지 관제센터의 문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KT-MEG 센터(KT-Micro Energy Grid Center)로 명명된 이곳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인 K-MEG로 개발한 에너지 통합운영관리시스템과 KT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탄생했다.

과천의 KT 네트워크관제센터 9층에 자리한 이곳에는 에너지 전문인력 35명이 24시간 상주하며 에너지 운영·관제를 담당한다. 이들 인력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전기자동차 충전과 수요자원 운영 등 에너지 생산부터 소비, 거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생산 분야에서는 장애, 과열, 먼지 등 발전 효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을 실시간 분석해 발전량을 극대화하고 실시간 원격 장애 대응으로 긴급 장애 복구 서비스를 지원한다.

소비 분야에서는 지능형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열·전기 소비 수요를 예측하고, 설비 최적운영 가이드와 에너지 절감 극대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거래 분야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 비용을 80% 이상 절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를 꾀할 계획이다.

KT는 "KT-MEG 센터에서는 에너지 효율화, 수요자원 운영, 전기 자동차 충전 등 약 1700개 사이트를 실시간 통합 관제하고 있다"며 "향후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전력계량기(AMI) 등 에너지 솔루션을 추가 통합해 KT-MEG 시스템을 확대하고 고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황창규 KT 회장,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구자균 스마트그리드협회장, 박성철 한국전력공사 신성장동력본부장, 박규호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대표 등 국내 에너지 산업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앞으로 KT-MEG 센터는 다양한 중소기업과 개인의 제품, 아이디어가 손쉽게 탑재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KT는 여러 중소사업자들이 손쉽게 에너지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에너지 강국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문경 기자

LG유플러스는 국내외 장비업체와 함께 연구 개발을 공동 진행하고 상용망 테스트 시연까지 가능한 '5G 기술시험센터'를 LG유플러스 상암사옥에 구축했다고 1일 밝혔다. 모델이 5G 기술시험센터 구축을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LGU+ '5G 기술시험센터' 구축

상암사옥 1~2층 연결 복층 구조
개발되면 1시간 이내 시연 가능

LG유플러스가 서울 상암동에 있는 LG유플러스 상암사옥에 '5세대(5G) 기술시험센터'를 구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센터는 국내외 장비업체와 공동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상용망 테스트까지 할 수 있다. ▲5G 기술과 장비 개발을 위한 5G 개발 연구실 ▲개발된 장비의 상용망 적용을 타진하는 5G 테스트베드룸 ▲고객에게 5G 기술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5G 체험관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특히 신규 네트워크 기술이 개발되면 1시간 이내에 상용망 적용 시연까지 할 수 있도록 사옥 1층과 2층을 연결한 복층 형태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2층에 있는 5G 기술시험센터에서 5G 장비와 기술을 개발하면 1층의 상용망 시험 장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이 센터가 인공지능 로봇, 자율 주행차량, 드론, 웨어러블, 센서 등 조만간 활성화될 다양한 유형의 5G 기반 서비스를 연결하고 진화시키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5G 기술시험센터 개소를 계기로 2020년으로 예상되는 5G 국제표준화 시점에 맞춰 시범 서비스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를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문경 기자

제주항공, 日노선 증편기념 항공권 특가판매

인천~후쿠오카 등 3개 노선
운항횟수 하루 1회→2회 왕복

제주항공은 2일부터 인천~후쿠오카 노선을 시작으로 11일 인천~오사카, 김포~오사카 등 3개의 일본노선 운항횟수를 현재 하루 1회에서 2회 왕복으로 증편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같은 운항일정 증편에 따라 제주항공은 총 9개의 한일노선을 운용하게 됐다. 한일노선 운항횟수도 주 59회에서 주 80회로 늘어난다.

제주항공은 이번 증편을 기념해 일본노선 항공권 특가판매에 나선다. 탑승기간은 2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며, 예약기간은 2일 오전 10시부터 12월15일 오후 5시까지다.

예매는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과 웹 등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다.

특가항공권의 가격은 편도 최저 운임을 기준으로 ▲인천~도쿄 11만8000원 ▲인천~오사카, 김포~오사카 10만8000원 ▲부산~오사카 5만3000원 ▲인천~나고야 7만8000원 등으로 책정됐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세성 기자 sesung@

창구 안가도 계좌 개설… 비대면 금융시대 개막

인터넷은행 공식 출범 후 금융권 전체로 확산 수순

은행권이 지점 창구 방문 없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이달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를 허가하면서 은행권은 본격적인 비대면 금융거래 도입에 나서는 분위기다.

아울러 최근 카카오뱅크와 K뱅크 컨소시엄 두 곳이 국내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에 예비 인가를 받은 것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인터넷은행의 핵심이 비대면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인터넷은행이 공식 출범하면 비대면거래 방식이 금융권 전체에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비대면 실명확인제와 관련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신한은행은 이달초 출시하는 모바일 전용 서비스 '써니뱅크'와 무인 점포 '디지털 키오스크'에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써니뱅크는 실명확인증 사본을 제출토록 한 뒤 영상통화와 휴대전화로 본인명의 인증 방식을 사용한다. 디지털 키오스크에는 추가로 정맥 인증 방식이 적용되며 향후 기존계좌 인증 방식과 지문인식 방식도 추가 도입될 예정이다.

KEB하나금융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문과 홍채, 안면인식 등 생체 인식을 통한 본인 확인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사업자 인가에서 탈락한 IBK기업은행은 최근 눈의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있는 홍채 정보를 활용해 본인인증을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홍채 전문업체 이리언스와 협력해 서비스 상용화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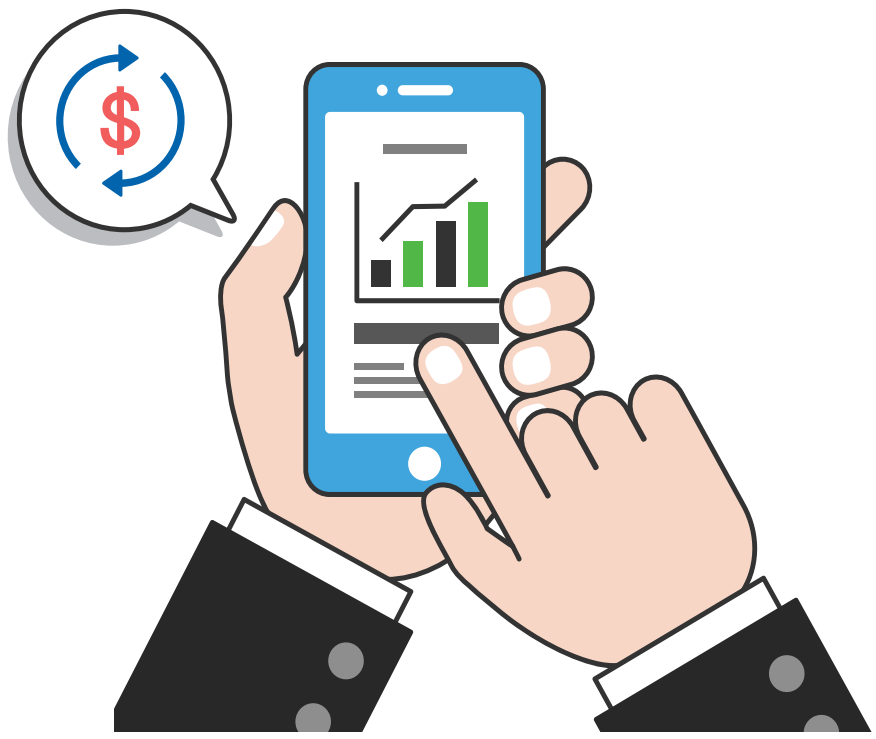
KB금융 역시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시중은행 중 최초로 생체인증을 주제로 한 'KB핀테크 Day'를 개최하는 등 관련 기술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행사에서는 정맥, 홍채, 지문, 안면, 음성, 서명 등 6개 생체인증 분야 10개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기술력을 소개했다. KB금융은 우수 기술력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비대면 실명 확인은 지난 5월 18일 금융위원회가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도입을 준비했다. 1993년 실명 확인은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지 22년 만의 변화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시 신분확인, 기존 계좌 이용 등 최소 2가지 이상의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병행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모바일뱅킹 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의무 사용제가 폐지되고, 금융거래에서 지문·홍채 등 생체인증이 가능해지는 등 비대면 본인 인증이 활성화 되는 추세다.

금융권에서는 생체 인증 기술이 도난이나 분실 가능성이 없어 차세대 본인 인증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K뱅크는 계좌 개설 시 영상통화를 통한 실명 인증을 할 예정이다.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이나 ATM에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은 뒤 영상통화를 하고, 동시에 스마트폰 단말기와 유심(USIM)의 고유 일련번호를 이용해 고객이 입력한 정보와 통신사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자동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체 등 금융거래를 할 때도 공인인증서 대신 안면·음성·홍채인증과 신용



카드를 이용한 근거리무선통신(NFC) 인증 등이 사용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아직 구체적인 비대면 인증 방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카카오뱅크 역시 안면·지문·홍채 등 다양한 생체인증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인증 방식을 탑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은행권의 비대면 금융거래 서비스가 확산될 전망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신한금융그룹, 장애인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 선물

신한금융그룹은 1일 서울 서대문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 만들기' 봉사활동을 가졌다. 한동우 신한금융그룹 회장(가운데)이 조용병 신한은행장(왼쪽), 이성락 신한생명 사장 등 그룹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옥상정원에서 부식방지를 위한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산업銀-기업銀 1000억 펀드 손잡았다

벤처 지원위한 '파트너쉽펀드 2호' 결성

KDB산업은행이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파트너쉽펀드 2호'를 결성했다.

1일 산은에 따르면 글로벌파트너쉽펀드는 국내 벤처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벤처캐피탈이나 전략적투자자의 국내 벤처펀드 조성을 지원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펀드오브펀드(Fund of funds)다.

이들의 글로벌 역량과 네트워크를 활용, 국내 벤처·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 펀드의 출자대상 하위펀드는 해외 벤처캐피탈이 운용하거나 해외기업이 전략적투자자로 참여하는 펀드에 한한다. 출자를 받아 조성되는 하위펀드는 펀드 약정 총액의 최소 50% 이상을 국내 벤처·중소기업에 투자하게 된다.

글로벌파트너쉽펀드의 운용을 맡고 있는 산은자산운용은 지난달 27일자로 출자대상 하위펀드 운용사 5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운용사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약 35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난해 800억원 규모로 결성된 1호 펀드의 경우 미국, 영국, 홍콩계 벤처캐피탈을 포함한 5개의 하위펀드 운용사를 선정, 총 37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가 조성돼 운용 중에 있다.

금년에 추진된 2호 펀드는 국내 벤처·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확대하고자, 미국, 중국, 일본계 벤처캐피탈을 하위펀드 운용사로 선정해 지역적 다변화를 꾀했다.

산은 관계자는 글로벌파트너쉽펀드 2호 결성과 관련해 "국내 대표 네비게이션 기업 '김기사'는 626억원에 다음카카오에 인수된 반면, 이스라엘 네비게이션 업체 '웨이즈(Waze)'는 13억달러(약 1조5000억원)에 구글에 매각됐다"며 "국내 벤처기업들도 사업 초기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사업을 펼칠 경우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한달만에 은행권 가계대출 9조원 늘었다

가계대출, 사상 최대폭 증가 기업대출·연체율도 소폭 상승

〈국내은행* 부문별 대출채권 증감 추이〉 (단위: 조원)

구분	'12년중	'13년중	'14년중	'15년 1~						'15.10말
				10월중	10월중	6월중	7월중	8월중	9월중	10월중P	잔액P
기업대출	32.5	36.2	51.5	8.8	55.9	2.2	5.2	5.8	7.0	10.7	761.6
대기업	27.6	8.9	16.1	2.9	1.2	△2.2	0.1	0.5	1.3	3.4	184.5
중소기업	4.9	27.3	35.4	5.9	54.7	4.3	5.1	5.3	5.7	7.3	577.1
가계대출 (유동화잔액포함)	12.0 (22.3)	14.5 (24.6)	39.2 (39.1)	6.4 (7.2)	31.0 (64.1)	△10.5 (8.2)	1.1 (7.3)	7.9 (7.7)	5.4 (6.2)	8.7 (9.0)	549.2 (624.1)
주택담보대출 (유동화잔액포함)	11.3 (21.6)	11.9 (22.0)	37.3 (37.2)	5.5 (6.3)	25.3 (58.4)	△11.8 (6.9)	0.2 (6.4)	6.2 (6.0)	5.2 (6.0)	6.6 (6.9)	389.5 (464.4)
공공 및 기타	△6.7	4.9	2.9	△0.3	△01.9	△0.2	△0.5	△0.4	0.3	△0.2	29.8
원화대출 계	37.8	55.6	93.6	14.9	85.0	△8.6	5.8	13.3	12.7	19.2	1,340.6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계정 신탁대출금 기준. 자료=금융감독원

지난달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연체율 역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소폭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이 1일 내놓은 '10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10월 말 기준 원화대출채권 잔액은 1340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5% 증가했다.

기업과 가계대출 모두 전월보다 대폭 올랐다. 특히 국내 은행의 10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549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8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 9월 증가분(5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커진 것으로 저금리 기조와 아파트 거래량 증가 등 주택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른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은 184조5000억원, 577조1000억원으로 각각 3조4000억원, 7조3000억원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월 모기지론 유동화잔액 증감분 3000억원을 포함하면 10월 전체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9조원 증가한 셈"이라며 "기업대출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등 자금수요가 늘어났고,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대출이 증가해 대출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10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7%로 전달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연체율 상승은 10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1조6000억원)이 연체정리 규모 1조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대비 0.01%포인트 오르는데 그치며 0.4%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올랐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달보다 0.06%포인트 오른 0.92%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연체율은 0.08%포인트 떨어졌으나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0.11%포인트 올랐다.

류찬우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10월 연체율은 9월과 비교해 상승했지만 전년동월 대비로는 하락하는 등 개선되고 있다"며 "다만 취약 업종의 부실화 가능성과 가계부채 증가세 등 리스크 요인을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가중되는 위기 이기고, 지속가능한 회사로"

정해붕 하나카드 사장, 1주년 기념식

정해붕 하나카드 사장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카드산업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1일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의 통합 1주년을 맞아 본사에서 임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대내외 위기를 극복해 지속 경영이 가능한 회사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도 가맹점수수료 인하, 포인트 자동기부 법제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으로 카드산업은 더욱 더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모바일 분야의 글로벌 카드사로 성장하기 위해 우리 모두 변화와 혁신 없이는 생존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하나카드는 작년 12월 1일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가 통합해 출범했다. 통합 이후 하나카드는 유심(USIM)형 모바일카드 190만장, 애플리케이션카드 방식 '모비페이' 160만장 등 약 350만장의 모바일카드를 발급했다. 내년에는 약 1조5000억원 이상의 취급액을 예상하고 있다.

통합으로 인한 중복비용 절감과 시장 확대 노력에 힘입어 하나카드는 9월말 기준 당기순이익 254억원을 기록했다. /이정필 기자

1일 하나카드 통합 1주년을 기념해 본사에서 정해붕 사장(가운데), 권혁승 부사장(오른쪽 두 번째), 이광준 감사(왼쪽 두 번째), 직원(양끝 남녀)이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좀비기업 퇴출에 결산 맞물려 … 12월 채권투자 적기

채권금리 더 떨어질
부실 대기업 발표도
'저가매수'에 적기

주식시장에는 '캘린더(Calendar)효과'란 말이 있다. 산타랠리와 같이 증시가 특정한 시점에서 일정한 흐름을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채권시장에도 '12월 효과'라는 게 있다. '12월 효과'란 기관투자가의 연말결산 영향으로 채권 투자가 위축돼 채권수익률이 일시적으로 상승(채권값 하락)하며 왜곡돼 채권 저가매수 기회가 생기는 현상이다.

올해는 기관들의 북클로징(회계 결산), 좀비기업 퇴출 등의 영향으로 '12월 효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채권시장도 '12월 효과' 기대

1일 투자금융(IB) 업계에 따르면 올해는 12월에 크레딧 스프레드(회사채수익률과 국채수익률 간의 차이)가 확대(가격 하락)됐다가 1월에 다시 축소(가격 상승)돼 채권 수익률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12월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11월중 여전채 A+등급 3년물 크레딧 스프레드는 12bp(1bp=0.01%포인트), 상대적 안전자산인 공사채와 은행채 스프레드 6bp 이상 확대됐다. 회사채 AA-등급 3년물 크레딧 스프레드는 53.6bp에 달했다. 이는 전고점('14년초 51bp)을 웃도는 수준이다.

〈11월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축소 상위 10 개 회사채〉

자료=이베스트투자증권

유형	등급	민평3사 통합표	11월(27일종가) (bp)	10월(30일종가) (bp)	변동 (bp)	비고
확대	BBB+	한화건설	541.9	363.9	178.0	등급 하락
	BBB-	대우조선해양	685.2	542.7	142.5	등급 하락
	BBB-	두산건설	890.0	858.3	31.7	
	A0	현대산업개발	260.0	235.4	24.6	
	BBB0	폴라리스쉬핑	621.6	600.7	20.9	신규 발행
	AA-	한화테크윈	65.5	45.9	19.6	신규 발행
	A0	LS네트웍스	138.8	120.7	18.1	
	A0	에스케이씨(SKC)	80.4	64.5	15.9	신규 발행
	AA0	연합자산관리	54.5	40.3	14.2	신규 발행
	AA0	지에스이피에스	58.0	44.6	13.4	신규 발행
축소	BBB+	현대로지스틱스	193.0	191.9	1.1	
	BBB+	한양	544.6	542.6	2.0	
	A-	케이씨씨건설	309.9	306.6	3.3	
	AA+	현대백화점	39.2	34.8	4.4	
	AAA	하나금융지주	29.4	24.8	4.6	신규 발행
	AAA	KB금융지주	29.4	24.7	4.7	신규 발행
	BBB+	쌍용양회공업	292.8	287.9	4.9	
	A0	대림코퍼레이션	143.5	138.3	5.2	
	AAA	디지비금융지주	33.4	27.9	5.5	
	AAA	한국증권금융	29.9	24.2	5.7	

이베스트투자증권 손소현 연구원은 "12월에는 기관의 북클로징 등으로 거래량이 더욱 감소할 수 있어 최근 확대된 크레딧 스프레드는 더 확대될 수 있다"면서 "특히 최근 금감원에서 175개 구조조정 대상 부실 중소기업 명단이 발표된데 이어 12월 말~내년 초에 부실 대기업 명단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크레딧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험적으로 12월은 미매각 채권을 처리하기 위한 급매물량이 많이 나오는데 펀드와 기관의 '북클로징'으로 인해 투자 수요는 위축되면서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1월에는 연초라 발행물량이 적은 상황에서 투자 수요는 회복되면서 크레딧 스프레드가 다시 축소되는 패턴을 보인다. 12월에 채권을 매입했다가 1월에 매각하면 낮아진 금리만큼 짭짤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셈이다.

◆연말 채권 발행시장 위축

올해들어 크레딧 발행시장은 기업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된 모습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11월중 크레딧물은 전년 동월 대비 22.6% 감소한 18조2000억원 이었다. 회사채의 경우 발행희망금액 2조 6700억원, 유효수요 3조 872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12월은 '북클로징'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대기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기업 구조조정 이슈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기관들의 매수기반이 더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은행들이 금리 상승에 대비해 발행비수기인 12월에도 대규모 자금조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경우 향후 금리상승에 대비한 자금 선확보,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자금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협은행도 지방자치단체 예금 인출분 충당을 위해 농금채 발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제도 변경으로 지자체가 예산의 연내 집행을 확대하면서 지자체 예금 인출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은행채는 3조6000억원이 순수하게 증가했다. 특히 산업은행(3조)과 농협은행(2조)에서 대규모 순증을 기록했다.

여기에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대기물량도 수급에 부담요인이다.

여전사의 자동차금융자산 및 통신사의 단말기할부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이 2조원 가량 발행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 김기명 연구원은 "기업구조조정 이슈 등으로 12월 크레딧채권시장은 스프레드 확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특히 발행비수기인 12월에도 대규모 은행채 발행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북클로징과 맞물려 단기 수급이 꼬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KB투자증권과 함께하는 자산관리

금리 영향 주는 경제지표 챙겨야

⑫ 공장주문을 꼼꼼히 살펴라

내구재·비내구재로
경기 흐름 파악

공장주문 살필땐
제조업 주문 관찰

다음주에는 미국 제조업지표, 소매판매, 고용지표, 건설지출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줄줄이 발표된다. 오는 15~16일(미국 현지시간),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어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지표들을 꼼꼼히 챙겨보아야 할 한 주다.

경제지표 중에서도 제조업 경기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공장주문(수치)을 알아보고자 한다. 공장주문수치는 내구재와 비(非)내구재 주문지수를 합한 것으로 미국의 제조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특히 관심 있게 봐야 한다. 내구재는 교체 수명이 최소 3년 이상인 제품들로 공장주문의 53%를 차지하는 제품들이다. 자동차, 냉장고, TV와 같은 것들이 내구재에 속한다.

반면 나머지 47%를 차지하는 비내구재는 음식료, 의류, 유류제품과 같은 품목들이다. 비내구재는 전체 소매매출의 63%를 차지하고, 소매매출이 증가와 기업 생산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해 제조업 상황을 파악할 때 내구재와 비내구재를 합쳐서 전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구재는 경기 싸이클을 미리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대부분 고가의 제품이면서 교체 주기가 길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나 지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고용이나 산업생산, 이윤 등의 경제 요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비내구재들은 주로 생필품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경기 흐름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비내구재 주문, 즉 생필품 수요가 전년대비 크게 늘어났다면 당장 다음달 발표될 소매판매나 소비지출 항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특히 공장주문을 살필 때 운송과 방산재를 제외한 제조업 주문을 관찰할 것을 권한다. 이유는 종종 민간항공기 및 방산재 지출이 급증하는데, 이는 신규 주문액 규모가 다른 재화들에 비해 커서 전체 신규 주문액에 대한 급격한 상승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체 제조업계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는 실제보다 부풀려져 보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영준 KB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연구원

KB WM CAST 앱을 통해 자세한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분식회계땐 회계법인 대표 중징계

중간 관리자·감사도 책임
내년 2월 이후부터 적용

내년부터 기업의 중대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대표에게도 등록 취소, 직무 정지 등 제재가 가해진다. 또 회사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중간 감독자와 감사 역시 부실감사 책임을 물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그동안 분식회계 부실감사 책임이 있는데도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 온 회계법인 대표이사와 회사의 감사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처럼 관련 업무 담당자만 제재하면 분식회계를 근절할 수 없다고 판단,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해 상위자를 처벌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A회계법인의 대표이사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독립성 준수 확인절차 미흡 등 품질관리제도 상 중대한 미비점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부실감사 원인이 회계법인 운영 과정의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 회계법인 대표에게 직무정지 제재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부실 감사를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등 고의적인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회계사 등록을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강력한 제재를 부과키로 했다.

실질적으로 현장 감사를 책임지는 매니저 등 '중간 감독자'에 대한 제재도 마련된다. 그동안 중간 감독자는 감리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감사현장에서 1차적인 감독업무 소홀로 감사품질이 저하되거나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부실감사의 주요 책임이 중간 감독자에 있는 것이 입증되면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대표나 책임자인 감사업무 담당이사로부터 지시·위임에 따라 위법 행위에 가담하거나 묵인하는 경우 등록 취소,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금감원은 이번 대책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개정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재무제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박희춘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지금까지 회계법인 대표가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해 부실 감사가 발생해도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 해결이 어려웠다"며 "이번 조치로 감사의 책임성이 강화되는 등 감사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박희춘 회계전문심의위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분식회계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금감원

금융위·건설업계 삐끗…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안' 놓고 갈등

해외수주 경쟁력 떨어져… 탄원서 제출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해 건설업계가 반발, 갈등이 예상된다.

1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25개 주요 건설회사는 금융위가 지난 10월 발표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개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지난달 27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이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 수주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업계가 반발하는 내용은 주요 사업장별 주요정보 공개와 핵심감사제(KAM)의 도입이다.

건설사들은 탄원서를 통해 "주요 사업장별로 공사진행률·충당금·미청구공사 등을 공개할 경우 공사원가(원가율) 추정이 가능해진다"며 "이는 곧 원가 정보가 외국업체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 해외 공사 수주에 타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집 옆에 바로 학교… 맘 잡는 교육단지 인기

〈Mom〉

도보권 학교, 통학 걱정 덜어
학원가 밀집… 교육환경 우수

학부모 수요층 관심 높아
최대 8000만원 웃돈 형성

충남 서산 라온 프라이빗 투시도.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백모씨(34)는 최근 초·중·고교가 단지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새로 분양 받았다. 아이의 안전한 등하굣길이 보장되는 단지를 알아보던 백씨는 단지 주변으로 학교가 많고 학원가도 잘 형성돼 있어 한시름 덜었다. 최근에는 6000만~8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연일 싱글벙글이다.

올해 주택 시장에는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 세 번이나 이사했다는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 열풍이 불었다. 최근 2년 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100건 이상 늘자 학군과 가까운 학주 근접 단지에 대한 학부모 수요층의 관심이 높았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12년이라는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학부모 수요층은 자녀 교육이 끝날 때까지 한 곳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국내 자가 가구 평균 거주 기간은 11.2년으로 교육과정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도보권에 학교가 갖춰지지 않으면 어린 자녀는 직접 바래다줘야 하므로 출퇴근으로 바쁜 아침저녁에 따로 시간을 투자해야 하며, 적잖게 걸리는 통학 때문에 자녀의 안전사고나 범죄 위험 노출 가능성 등 심적 부담 요소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집값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걸어서 통학권인 단지는 보다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장기간 거주하려는 수요층이 많아 웃돈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아파트도 '맹모삼천지교'

지난 3월 공급된 '왕십리뉴타운 센트라스'는 더블역세권 단지로 교통망이 좋은 것과 함께 도보통학 아파트라는 점이 장점이다. 성동고와 한양대부속고, 한양대가 가까우며 1단지에는 초등학교 1곳, 3단지에는 고등학교 1곳이 신설될 예정이다.

현재 '왕십리뉴타운 센트라스' 분양권은 평균 4000만~6000만원 정도 프리미엄이 붙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전용면적 84㎡형 분양권은 평균 6억2000만~6억8000만원, 59㎡형은 5억1000만~5억5000만원 선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왕십리 뉴타운 센트라스' 분양가는 ▲59㎡ 5억1000만원 ▲84㎡ 6억3000만원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신고된 분양권 거래 추이를 봐도 알 수 있다. 전용 84㎡형 분양권은 10월 6억3920만~6억8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고 59㎡형은 5억740만~5억3990만원 수준에 거래됐다.

청약에서도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이 울산 남구 대현동에 공급한 '대현 더샵'은 단지 바로 옆에 용연초와 야음중, 대현고 외에도 반경 500m 내에 7개 초·중·고가 있는 학군 프리미엄에 1순위 청약에서만 최고 452.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교육시설이 단지 가까이 있게 되면 안전통학이 보장되고 학원가도 밀집해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아진다"며 "인근 단지에 비해 시세가 높고, 전세 수요가 두터워 대기 수요가 탄탄하게 뒷받침돼 학부모 수요층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연내 분양단지 어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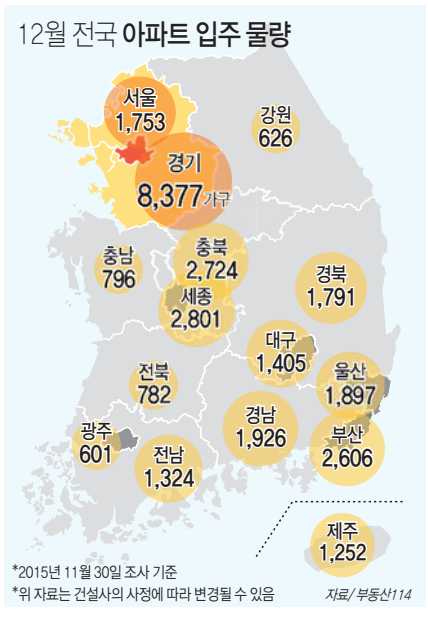
연말까지 새로 분양되는 물량 가운데 단지 인근에 교육 여건을 갖춘 곳이 속속 공급된다. 충남 서산시에는 라온건설이 12월 '서산 라온 프라이빗' 분양에 나선다.

충남 서산시 석림동 792번지에 들어서는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8개동 전용면적 59~84㎡, 569가구 규모다.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서림초와 석림초, 서산중, 서산여중, 서산여고 등 학군이 밀집돼 있다. 또한 단지 주변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충남서부평생학습관도 있어 자녀의 안전한 통학환경이 보장된다.

분양 관계자는 "유치원에서 초, 중, 고교에 이르기까지 단지 내 학군이 몰려 있어 안전한 통학 환경에 자녀를 둔 학부모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 주변에는 유해시설이 없고 공원이 많아 주거환경도 쾌적하다"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metroseoul.co.kr

12월 전국 3만여 가구 집들이… 전월比 63.2% ↑



수도권 1만130가구 입주하고
지방에선 2만531가구가 이사

이사철 비수기로 꼽히는 12월이지만 올해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풍성해 새해를 새집에서 맞이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국 3만 661가구로 집계됐다. 11월보다 1만1868가구(63.2%) 증가한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11월 대비 수도권은 4532가구(81.0%) 증가한 1만130가구가 입주하고, 지방은 7336가구(55.6%) 증가한 2만531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한다. 수도권 중 서울에서는 강서구 공항동 마곡힐스테이트 603가구, 영등포구 신길동 래미안영등포프레비뉴 949가구 등 1753가구가 입주 준비 중이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창곡동 위례사랑으로부영(A2-10 B/L) 1380가구, 남양주시 지금동 지금힐스테이트 1008가구,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푸르지오(A3-2 B/L) 1100가구 등 8377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지방에서는 세종에서 아름동 중흥S클래스에듀하이 852가구 등 2801가구로 공급 물량이 가장 많다. ▲충북 2724가구 ▲부산 2606가구 ▲경남 1926가구 ▲울산 1897가구 ▲경북 1791가구 ▲대구 1405가구 ▲전남 1324가구 ▲제주 1252가구 ▲충남 796가구 ▲전북 782가구 ▲강원 626가구 ▲광주 601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박상길 기자

대우건설,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

대우건설은 지난달 27일 서울 광화문 본사 구내식당에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열었다. 봉사활동에는 대우건설 전략기획실과 재무금융실 임직원 50명이 참여해 김치 300포기를 담갔다. 김장김치는 서울 은평구 아동복지시설 은평천사원에 전달됐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1조원 규모 필리핀 발전소 수주

美 AES의 현지 자회사 MPPCL과
마신록 석탄화력발전소 공사 계약

포스코건설이 필리핀에서 1조원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

포스코건설은 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미국 AES사의 필리핀 현지 발전 자회사인 MPPCL과 마신록 석탄화력발전소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ES사는 세계 18개국에서 3만4732메가와트(MW)규모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미국 발전회사다.

마신록 발전 프로젝트는 필리핀 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서쪽으로 약 250㎞ 떨어진 잠발레스주 마신록 지역에 600MW 규모의 초임계압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38개월이다.

초임계압 석탄화력발전소는 물 끓는 과정 없이 바로 증기로 변하는 수준의 압력(225.65㎏/㎠)과 온도(374℃)로 증기를 발생시켜 사용하므로 기존 발전방식보다 효율이 높고 연료소비나 이산화탄소 발생이 적은 것이 장점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2013년 3월부터 이 프로젝트의 정보를 입수하고 필리핀의 전력수요를 파악해 수주 활동을 전개한 결과 지난 달 발주처로부터 낙찰통지서를 받은 뒤 계약에 성공했다"며 "발주처와의 지속적인 신뢰관계 속에서 맺어진 결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 2006년 AES가 발주한 칠레 벤타나스 석탄화력발전소를 수주하면서 국내 건설사 최초로 중남미 에너지플랜트 시장에 진출했다. 이후 AES와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캄피체, 앙가모스, 코크란 등 현재까지 칠레에서만 4개의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박상길 기자

국토부-경기도 '뉴스테이' 추진 맞손

현장설명회·업무협약 체결
조직정비 등 체계구축 계획

국토교통부는 1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뉴스테이법) 현장 설명회를 열고 경기도와 뉴스테이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광주·대구·부산에 이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맺는 5번째 뉴스테이 업무협약이다. 이번 행사는 뉴스테이법·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뉴스테이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 조직 정비 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세제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경기도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등에 참여한다.

한화건설 뉴스테이 수원 권선 꿈에그린 조감도

한편 경기도는 지난 10월 28일 지자체 최초로 뉴스테이 전담팀을 구성했다.

현재까지 경기지역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차 공모사업 3877가구와 민간제안사업 수원 권선 2400가구 등 6277가구의 뉴스테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연말까지 화성동탄(대우건설)과 위례에서 뉴스테이 1495가구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박상길 기자

2015 유통업계 10대 뉴스

메르스에 울고… 블프·모바일쇼핑에 웃고

〈블랙프라이데이〉

1. 메르스발 소매경기 악화
2. 홈플러스 매각
3. 소셜커머스 영향력 확대
4.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5. 옴니채널 트렌드 확대
6. 서울시내 면세점 쟁탈전
7.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8. 담뱃값 인상에 편의점 호황
9. 모바일 쇼핑 시장 확대
10. 유통 대기업 복합쇼핑몰

2015년 유통업계는 그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영향으로 시장이 휘청거렸다. 이어 기업 매각, 경영권 분쟁, 정부의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다. 그중 최대 뉴스는 메르스로 인한 소비 침체였다. 이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발간하는 유통전문지 '리테일매거진'이 유통·제조업계 임직원 210명을 대상으로 '2015년 유통업계 10대 뉴스'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다.

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자 발생으로 부분 폐쇄된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지난 6월 23일 오후 병원 관계자들이 출입자들의 체온을 점검하고 있다.
② 서울 시내 한 면세점을 방문한 고객들이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③ 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에 휴일을 맞아 많은 쇼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백화점 업계는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프라이데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할인 행사를 열고 있다.
④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확 줄었던 매출이 구매고객이 돌아오면서 1년전보다 60% 이상 늘었다.

◆메르스발 소매경기 악화

올 상반기 메르스 확산에 따른 국내 소매경기 악화는 유통업계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메르스 여파가 절정이었던 6월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 동월대비 10.2%, 백화점은 11.9% 하락했다. 서울 시내 전통시장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등의 거리는 사람의 발길이 끊겼으며 매출도 절반 이상 하락했다.

◆홈플러스 매각

영국 테스코는 홈플러스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매각하고 한국에서 철수했다. MBK는 지난 9월 7일 홈플러스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금액은 7조2000억원 수준으로 국내 M&A(인수합병) 역사상 최대 규모다.

◆소셜커머스 영향력 확대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시장 지위가 한층 올라갔다. 특히 쿠팡, 티몬, 위메프 등 빅3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주로 오프라인에서 구매했던 생필품 카테고리를 강화하고 빠른 배송 전략으로 승부를 걸었다. 배송에서는 쿠팡이 물류센터 확장, 로켓배송 강화 등으로 업계 선두를 치고 나갔다. 이어 티몬이 올 상반기부터 자체 배송서비스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경영권 분쟁으로 롯데그룹은 심각한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도 신 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공격은 거세기만 했다. 경영권 분쟁은 한·일 양측 법정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옴니채널 트렌드 확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쇼핑을 즐기는 소비자가 늘며 유통업체들의 옴니채널 구축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롯데마트는 온라인으로 미리 주문해 놓은 상품을 점포에서 찾아가는 '스마트 픽'의 프로세스를 차량에서 곧바로 받는 '드라이브 앤 픽'(Drive & Pick) 서비스로 발전시켰다.

◆면세점 쟁탈전

연 매출 8조원대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 면세점을 유치하기 위한 유통 대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했다. 지난 7월 관세청은 서울 시내 신규 면세사업자 티켓 2장을 대기업에게 줬으며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지난달에는 신세계와 두산이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모바일 쇼핑이 대세

모바일 쇼핑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며 PC쇼핑 시장을 위협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3분기 누적 모바일 쇼핑 시장 거래액은 약 17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1% 증가했다. 이는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의 46%를 차지하는 수치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지난 10월 정부는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를 실시했다. 성급한 추진으로 행사가 허술했다는 뒷말도 나왔지만 유통업체들의 실적증가 등 '한국판 블프'는 전반적인 내수 진작 효과는 있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막을 내렸다.

◆담뱃값 인상 수혜 입은 편의점

정부가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올 초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해 잠시 주춤했던 담배 구매 고객이 올 상반기 전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편의점 업계의 담배 매출은 급증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담배 관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6.1% 증가했다.

◆복합쇼핑몰 진출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의 유통 대기업들이 기존 매장을 확대·복합화하며 쇼핑타운을 잇따라 설립했다. 이마트는 연면적 10만㎡규모의 '이마트타운'을 현대백화점은 판교에 백화점·식품관·영화관이 어우러진 복합쇼핑몰을 열었다. 롯데그룹은 잠실 월드타워점에 1조2000억원을 투자한 '관광쇼핑 복합단지' 설립을 진행중이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CJ오쇼핑, 홍콩서 '셉' 뷰티 쇼로 인기몰이

CJ오쇼핑(대표 김일천)은 홍콩 대형 쇼핑몰 '플라자 헐리우드'에 설치된 CJ E&M 'MAMA 프리위크' 행사장에서 PB 화장품 브랜드 '셉'(sep) 뷰티 쇼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셉 K-뷰티쇼 위드 개리 청'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홍콩의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개리 청과 홍콩의 모델이자 유명 스타일 블로거인 젤리아 종이 출연해 2016년 메이크업 트렌드와 한국 스타일 연출법을 관람객들에게 소개했다.

CJ오쇼핑 측에 따르면 개리 청의 셉 화장품 소개에 관람객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CJ오쇼핑은 이와 별도로 플라자 헐리우드 내에서 지난달 28일부터 4일간 '셉 메이크업 존'을 운영했다. 셉 메이크업 존은 현지 고객들이 셉의 글램 라인과 쥬얼 라인 등 20여 종의 상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셉은 CJ오쇼핑의 뷰티 브랜드로 2008년 론칭 후 1000억원이 넘는 국내 누적 판매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6월에는 홍콩의 유명 뷰티 편집숍 '스위트메이'에 입점했으며 올 3월에는 필리핀, 7월 베트남, 8월 태국에 연달아 론칭했다. 동남아시아 3개국에서는 현재까지 1만5000세트 수출을 기록 중이다.

/김성현 기자

CJ오쇼핑이 지난 29일(토) 홍콩 홍콩 구룡반도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플라자 헐리우드'에서 CJ오쇼핑이 PB화장품인 '셉(sep) K-뷰티쇼 위드 개리 청' 행사를 열고 고객들에게 2016년 메이크업 트렌드와 한국 스타일의 연출법을 소개했다. /CJ오쇼핑

홈플러스, 시즌 첫 페루산 포도 출시

홈플러스는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전국 141개 매장에서 페루산 청포도를 5980원(1팩), 적포도를 6980원(1팩)에 판매한다. 엘리뇨 현상으로 페루산 포도의 시세가 20% 가량 올랐지만 홈플러스는 자체 마진 축소로 전년도 판매가와 동일한 수준에 판매할 예정이다. 직원들이 페루산 청포도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순둥이 '크리스마스 특별 한정판'

산타클로스·루돌프로 변신

유·아동 전용 물티슈 브랜드 순둥이가 크리스마스 특별 한정판(사진)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제품은 온라인몰에서 판매된다.

2015 순둥이 크리스마스 에디션은 산타클로스가 된 순둥이, 루돌프가 된 순둥이 2가지 버전으로 선보인다. 지난해 한정판과 달리 순둥이의 인기 제품 베이직 물티슈와 프리미엄 물티슈의 장점만을 담아 제조한 것이 특징이다.

무향 물티슈는 라임오일이 함유되어 사용 후 끈적임 없다. 동백꽃 추출물은 겨울철 건조하기 쉬운 피부를 자극 없이 부드럽게 닦아준다. 80매로 구성돼 실용성과 합리성도 동시에 갖췄다. /유현희 기자

굽네치킨 '지금 구우러 갑니다'

수험생에게 바로 구운 치킨 전달

굽네치킨이 지난달 27일 '지금 구우러 갑니다' 이벤트를 통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굽네치킨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 구우러 갑니다'는 지난달 9일부터 일주일간 공식 페이스북 해당 이벤트 페이지에 굽네치킨이 필요한 곳에 대한 사연을 접수했다. 이 중에서 채택된 안양부흥고등학교에 굽네치킨 시식차량이 방문했다.

굽네치킨은 시식차량에서 직접 50마리의 치킨을 구워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이벤트 당첨자인 한주연 학생은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신 굽네치킨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굽네치킨 홍경호 대표는 "수험생들에게 그동안 고생했다는 의미로 깜짝 이벤트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남은 입시까지 힘을 내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이대목동병원

양천소방서와 업무협약 체결

이대목동병원은 서울양천소방서와 지역사회 재난 발생 대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이대목동병원과 양천소방서가 연계해 지역사회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과 관련 교육, 훈련 등에 효율적인 업무 협력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사항으로는 ▲지역사회 재난 발생시 의료지원 협력 ▲소방서 구급대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제공 ▲소방과 연계한 병원 재난 훈련 ▲환자 분류 시스템 연계시스템 연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은 "양천소방서와 협력해 지역사회에 긴급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미우나 고우나 '청계의 상징'… 이젠 눈총보단 사랑을

박소정의
메트로 밖 예술 세계로

① 청계 광장의 부활 상징한 올덴버그의 스프링

나는 청계광장을 위해 태어났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를 나오면 뾰족하게 우뚝 솟아있는 빨강·파랑 나선형 다슬기 모양의 조형물이 시민들을 맞이한다. 흔히 '소라탑', '다슬기 기둥' 이라고 불리는 설치미술 '스프링(Spring)'이다. 스프링이라는 작품명에는 '봄', '용수철', '샘' 등 다중적인 의미가 내포돼 있으니 소라탑이나 다슬기 기둥이라 불러도 작가가 섭섭해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작가의 이름조차 몰라서는 곤란할 것 같다. 스프링은 클래스 올덴버그(Claes Oldenburg)가 청계천 복원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했다. 엄밀하게는 올덴버그와 그의 부인 코샤 반 브루겐(Coosje van Bruggen)이 협업하여 2006년 완성한 작품이다.

설치미술 '스프링'은 클래스 올덴버그가 청계천 복원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했다.

올덴버그는 '마릴린 먼로 두 폭(Marilyn Diptych)'의 앤디 워홀(Andy Warhol), '행복한 눈물(Happy Tears)'의 로이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 로맨틱한 'LOVE' 조각의 로버트 인디애나(Robert Indiana) 등과 함께 팝아트를 대표하는 스웨덴 출신의 미국 조각가다.

올덴버그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을 거대하게 확대하는 유머러스한 설치 조각 작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초기의 부드러운 조각 시리즈에 지서는 전통적인 조각에 대한 기존의 규범을 부정하는 작품을 선보였다. 셔틀콕, 빨래집게, 스푼, 볼링핀, 떨어뜨린 아이스크림콘 등 친숙한 사물이 도심 한복판, 공원 등 일상의 공간에서 갑자기 엄청난 스케일로 확대되어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이처럼 시각적 충격과 신선함이 올덴버그 작품의 특징이다. 그의 작품은 그러면서도 언제나 대중들에게 부담 없이 다가가서 즐거움을 안겨준다. '미술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다가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일상 속 물건 거대하게 확대하는 유머러스한 설치조각가 올덴버그

"미술은 모두에게 쉽게 다가가야"

10년 째 "안 어울려" 시끌

"논란 없으면 오히려 실망스러워"

하지만 그의 철학은 한국에서는 환영받지 못했다. '그의 작품이 청계광장과 과연 어울리는가'라는 논란은 작품 설치 이전부터 시작돼 거의 10년이 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정작 올덴버그 본인은 덤덤하다. 그는 준공식 당시 "전 세계에 40여 점의 작품을 설치했는데 그때마다 논란이 없으면 오히려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조형물이 서 있는 공간 즉, 빌딩으로 둘러싸인 도심과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변환경과 작품을 함께 들여다 본다. 수평과 수직으로 가득찬 고층 빌딩 사이에서 나선형으로 미끄러지듯 잘빠져 솟아 있는 스프링은 빌딩들과 확연한 대조를 이룬다. 작품 내부에서는 푸른색과 붉은색의 리본이 대각선으로 유영하듯 부드럽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경직된 서울의 도심과 균형을 맞추려는 조화로움이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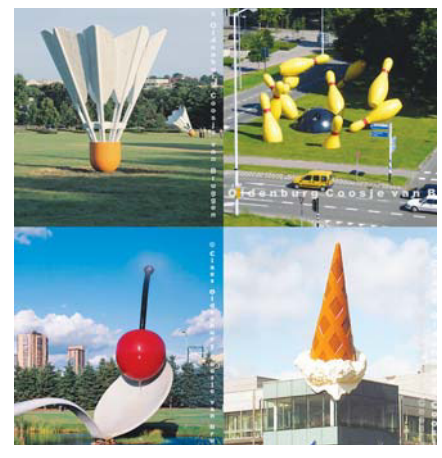
게다가 스프링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데도 성공했다. 조형물 주위로는 인근 관광버스에서 쏟아져 나온 한 무더기의 관람객들이 초겨울의 스산한 날씨 속에서도 포즈를 취하느라 부산스럽다. 이 정도면 올덴버그의 가치를 충분히 증명한 것 아닐까. 명색이 대중과 함께하는 '팝아트' 이지 않나. 미우나 고우나 청계광장과 함께할 올덴버그의 작품이 이제는 따가운 눈총보다는 사랑을 받았으면 한다.

피카소는 "예술이란 그것을 보는 사람을 통하여 비로소 생명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는 소라광장 약속을 이렇게 잡아보는것은 어떨까. "오늘 우리 올덴버그의 스프링 작품 앞에서 만나자"라고.

http://www.oldenburgvanbruggen.com에 들어가면 올덴버그의 더 많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박소정 객원기자 info@trinityseoul.com

사진/류주항 사진작가



올덴버그의 다른 작품들. /올덴버그공식사이트

- 큐레이터 박소정 : 아트에이젼시 〈더트리니티〉 큐레이터로 활동중
- 사진작가 류주항 : 패션사진과 영상 연출분야에서 'Matt Ryu' 로 활동중

지하철 1~4호선에 떡볶이·어묵 사라진다

'환기 곤란과 승객 불편 야기 식품' 역사 내 금지업종에 추가돼

서울지하철 1~4호선 역사 안에 자리잡은 어묵과 떡볶이 점포가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메트로는 최근 상가관리규정을 개정해 역사 내 금지업종에 '어묵·떡볶이 등 역사 환기 곤란과 승객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식품' 조항을 추가했다고 1일 밝혔다.

메트로 측은 이동식 조리대 바퀴에 노출된 전선 피복이 닳고, 조리시 수증기와 연기가 발생해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하는 등 화재 위험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메트로는 올해 7월 21일 이전 계약한 점포가 조리업종으로 업종 변경을 신청하면 폐쇄형 점포에서는 영업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이후 재계약 건이 생기면 조리 외 업종으로 유도하거나 변경이 어려우면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규 계약 점포에 대해서는 어묵·떡볶이 판매를 불가한다.

한편 현재 1~4호선에서 어묵과 떡볶이를 팔고 있는 곳은 24개역 27곳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교통카드 현금영수증' 9호선서도 받는다

서울 동작구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 승강장이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로 북적대고 있다. /연합뉴스

소득공제용 … 1일부터 발급

이달부터 모든 서울지하철에서 일회용 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1~8호선 1회용 교통카드 이용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으며 이번에 9호선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1일 첫차부터 지하철 9호선에도 적용된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8호선에서 발급한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8억 7000만원 어치다.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사용 뒤 환급받는 보증금을 제외한 발매금액을 기준으로 발급된다. 무기명 방식으로 발급되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일회용교통카드 발매시 받은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뒀다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영수증 거래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지하철 1~9호선에서는 1회용 교통카드가 408억원 어치(4800만건) 발급됐다.

서울시 이원목 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 지하철을 여럿이 한꺼번에 탈 때 이용하는 단체승차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무식아!

설득

Art By 현용민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친구와 동업을 계획 중인데 사업운이 있나요 재물운 하향길… 식품인증 자격증 준비하시길

미테오 남자 59년 12월 19일 음력 14시경

Q 선생님 도와주세요. 저는 올해 57세의 남자입니다. 그동안 저는 식품 가공 업체에서 영업직 일을 해오고 있었는데 창업자가 돌아가신 후 자식들의 내분으로 인하여 회사가 와해됐습니다. 그 바람에 정년도 못 채우고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먹고 사느라고 바쁜 가운데에도 절약하는 정신으로 생활해 자식들도 결혼을 시켰으나 제 자신에 대해서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호두나무 농사를 짓는 친구가 호두 자체를 판매하는 것보다 가공공장을 세워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을 함께 하자고 합니다. 저의 운이 이러한 동업과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대사회에서 직업이라는 의미는 생활을 영위해 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업을 선택할 때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따라 가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태어남과 동시에 갖게 되는 사주팔자와 관련되어 있어 자신이 타고난 끼와 성품을 이해하고 현실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꿈에 대한 타협이 이뤄 졌을 때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지만 불리한 기운을 가진 직업일수가 있고, 좋지 못한 기운을 타고 났지만 주위의 환경을 자신의 의지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사주팔자를 보고 가름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주로 진단해 보는 것이지요.

생일지(生日支)와 월주(月柱:태어난 달)에 백호(白虎)는 갑작스런 사고나 형액이 닥칠 우려가 깊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로 중분부터 말년까지 고생 할 수 있습니다. 생일지에 암장(숨어 있음)되어 있는 편재(偏財)가 의미하는 오행(五行)에서 겁재(劫財;쟁탈)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투기성을 띄는 사업을 일으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너의 기운은 약하고 참모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과 재물 운세는 하향 길로 가고 있으므로 동업에서 자금을 투자하는 일은 단기간 내에 괄목할 만한 성취를 볼 수 있지도 않으면서 이시기에는 신(神)들도 본인과 함께하지 않게 됩니다. 건강이나 운기에도 악 영향을 미치게 되죠.

다시 언급하지만 오히려 2017년부터 땅을 치고 통곡을 할 터이니 일을 하고 싶다면 영업 분야를 맡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 분이 마땅치 않다면 동업에 동참하지 말고 식품 관련 친환경 농축산물이나 유기농 농산물 관리와 인증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획득하여 다음날을 대비 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신점[神占] 운세

12월 2일 (음 10월 21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48년생 모든 일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60년생 명성과 이익이 있겠습니다. 72년생 할 일은 많은데 몸이 하나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84년생 조급해 하지 마세요.

소 49년생 지혜란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거듭나는 법입니다. 61년생 운이 따르지 않으니 실망하지 마세요. 73년생 노력하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85년생 옛 친구를 멀리 하지 마세요.

호랑이 50년생 구관이 명관입니다. 62년생 서둘러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74년생 날씨의 변화에 대응을 잘 해야 합니다. 86년생 순리에 맞게 차근차근 시행하세요.

토끼 51년생 정의롭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3년생 자신부터 다스리세요. 75년생 날로 번창하니 재물과 명예가 늘어납니다. 87년생 가는 곳마다 이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 52년생 시간활용을 잘 할 때 입니다. 64년생 출장이나 여행중 귀중한 물건을 분실할 실물수가 있습니다. 76년생 현 상태에 만족하고 더욱 노력하세요. 88년생 애정운이 좋지 못합니다.

뱀 53년생 주변 만물이 번창할 것입니다. 65년생 도처에 재물이 있으니 나가면 얻을 것입니다. 77년생 주위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세요. 89년생 어려움이 닥쳐도 능히 이겨 나갈 것입니다.

말 54년생 일에 진척을 살피며 천천히 진행하세요. 66년생 동쪽 물가로 가지 마세요. 78년생 서남쪽이 길한 방향입니다. 90년생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양 55년생 모든 것은 시와 때가 있는 법입니다. 67년생 노력한 만큼 운이 따르지 않습니다. 79년생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했습니다. 91년생 음식을 조심하세요.

원숭이 56년생 매사 신중 하세요. 68년생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80년생 늦게 이루어지니 조급해 하지 마세요. 92년생 현실에서 과감히 벗어나세요.

닭 57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법입니다. 69년생 마음에 안정이 없으니 하는 일마다 그르칩니다. 81년생 작은 일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93년생 구설수를 조심하세요.

개 58년생 거래를 이루려면 상대를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70년생 일을 크게 벌이지 마세요. 82년생 심신이 피곤합니다. 94년생 새로운 계획이 필요할 때 입니다.

돼지 59년생 성실하면 하늘이 도울 것입니다. 71년생 도전은 다음으로 미루세요. 83년생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집니다. 95년생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인다면 가히 이롭고 좋을 것입니다.

제작 | 그림자story www.grimzastory.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보누스

2	9	4	5	1	8	3	6	7
6	8	7	4	2	3	5	1	9
5	3	1	7	6	9	2	8	4
4	5	3	9	7	2	1	6	8
9	6	8	2	4	1	7	3	5
7	4	2	3	8	5	9	1	6
1	7	9	6	5	4	8	2	3
3	2	6	8	9	7	4	5	1
8	1	5	1	3	6	2	9	4

1	3	4	7	8	2	9	6	5
5	6	9	4	1	3	8	7	2
7	2	8	6	9	5	1	3	4
6	9	5	3	7	4	2	8	1
3	8	1	9	2	6	5	4	7
4	7	2	5	3	1	6	9	8
2	5	7	1	6	9	3	4	8
9	4	6	8	5	7	2	1	3
8	1	3	2	4	8	7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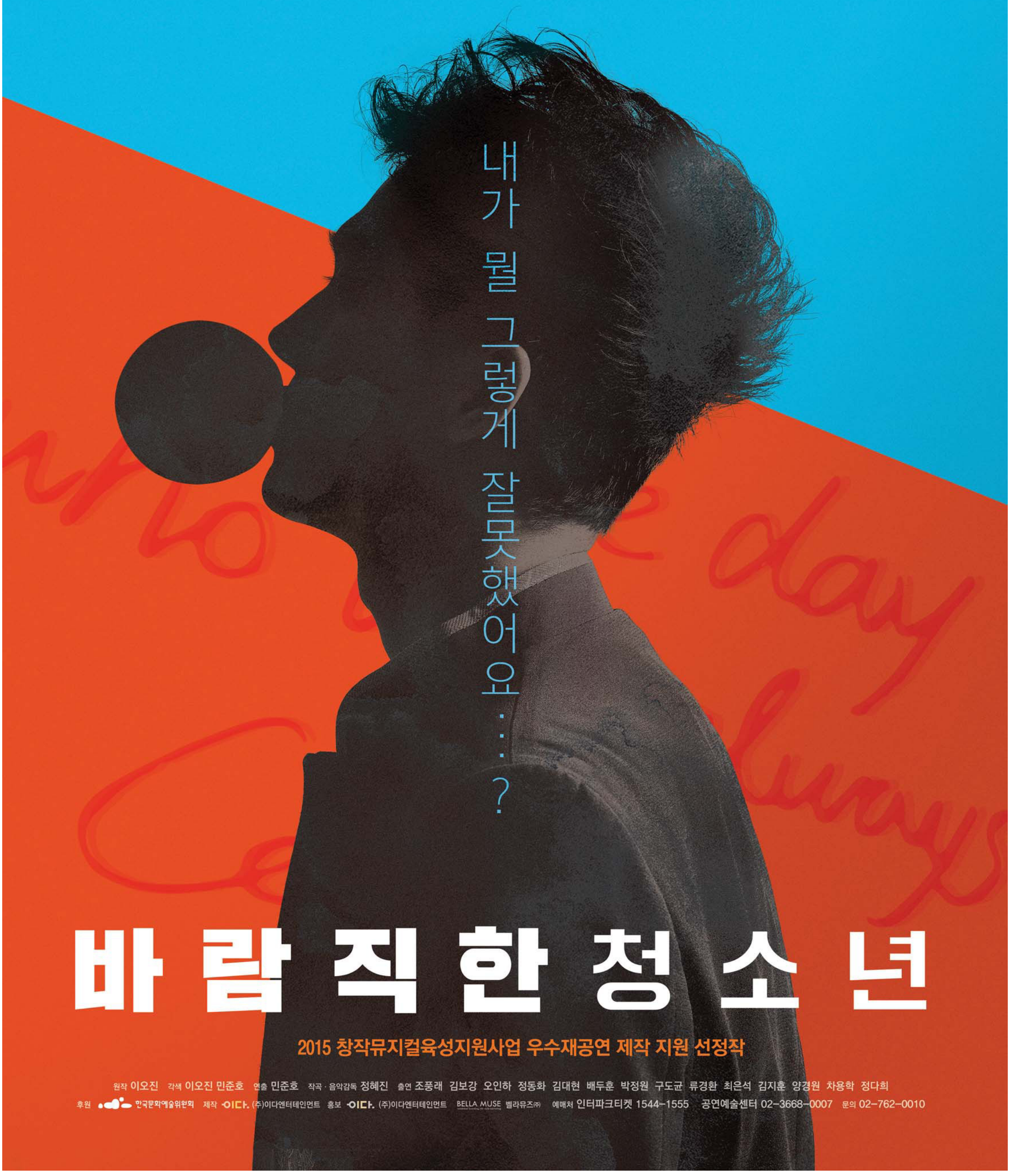
	5	6	4	3				
3	2		9					
	9				8	5		
			6			3		
	4	1		8		2	7	
		9			2			
		2	7				3	
					4		8	6
				1	5	4	9	

			4		8			
		7		3	9	6	4	8
3								7
4			8			2		9
				5				
9		3			2			6
1								5
8	3	4	5	1		7		
			2		7			

2015.
12.4(Fri) ~
12.20(Sun)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

평일 8시
토 3시, 6시 30분
일 2시, 5시 30분
월 쉼



바람직한 청소년

2015 창작뮤지컬육성지원사업 우수재공연 제작 지원 선정작

원작 이오진 각색 이오진 민준호 연출 민준호 작곡·음악감독 정혜진 출연 조풍래 김보강 오인하 정동화 김대현 배두훈 박정원 구도균 류경환 최은석 김지훈 양경원 차용학 정다희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작 이다. (주)이다엔터테인먼트 홍보 이다. (주)이다엔터테인먼트 BELLA MUSE 벨라뮤즈㈜ 예매처 인터파크티켓 1544-1555 공연예술센터 02-3668-0007 문의 02-762-0010

내년 첫방 앞둔 KBS '장영실' 대하드라마 최초로 홍콩 간다

드라마 '장영실'이 홍콩지역에 수출된다.

KBS는 내년 1월 방영예정인 대하드라마 '장영실'을 홍콩지역에 수출하기로 홍콩의 한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그동안 미니시리즈만 수출되던 홍콩지역에 대하드라마의 첫 수출사례이며 단가도 미니시리즈 중위권 수준으로 높게 책정됐다. 이는 '정도전' 등 기존 KBS 대하사극에 대한 해외시장의 높은 평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2016년 최고의 기대작으로 손꼽히고 있는 '장영실'은 대하드라마 최초의 과학 사극으로 노비였던 장영실이 세종대왕을 만나 15세기 조선의 과학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기까지의 과정을 담는다. '근초고왕', '징비록'의 김영조 PD가 연출을 맡아 KBS 1TV 대하사극의 명성과 자부심을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송일국이 장영실 역을 맡았으며 김상경(세종 역), 김영철(태종 역), 박선영(소현옹주 역) 등 명품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다. /신원선 기자

진이한, 크리스마스는 일본팬과 함께

11일 도쿄 닛쇼홀서 팬미팅

배우 진이한이 일본 팬들과 함께 달콤한 크리스마스를 보낸다.

진이한의 소속사 윌엔터테인먼트는 오는 11일 도쿄에 위치한 닛쇼홀에서 진이한의 팬미팅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월 화이트데이에 이어 두 번째 일본 팬미팅을 개최, 팬들에게 잊지 못 할 연말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팬미팅은 '진이한 2015 크리스마스 스페셜 팬미팅'이라는 주제에 맞춰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일본 내에서 국·내외 구분 없이 연간 1번 꼴로 이루어지는 팬미팅이 대부분인 것을 감안할 때 특별한 프로모션 없이도 같은 해에 잇달아 팬미팅을 개최하게 됐다는 점에서 일본 현지의 여전한 인기를 증명한다.

진이한은 "화이트데이에 이어 크리스마스까지 특별한 날들을 팬분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는 만큼 잊을 수 없는 시간을 선물해 드릴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이한은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을 리얼하게 담아낸 케이블 채널 OtvN의 '쓸모있는 남자들'에 출연해 예능감을 발휘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대장금' 벗고 '사임당' 입는다

SBS 드라마 '사임당, the herstory' **이 영 애**

배우 이영애와 양세종이 11월 30일 오후 강원 강릉시 죽헌동 오죽헌에서 열린 SBS 드라마 '사임당, 더 허스토리' 촬영현장 공개에서 리허설 장면을 확인하고 있다.

10년 전 '대장금'으로 한류열풍을 몰고온 이영애가 '사임당'으로 복귀한다.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아이들 엄마가 되고 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넓고 깊게 변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눈이 생긴 거죠. 조선시대 현모양처 신사임당을 통해 여자의 일생을 녹여내고자 합니다. 신사임당이 그 시대의 예술가이자 '워킹맘'이었던 것처럼 저와 닮은점이 많아서 인물을 더 잘 녹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우 이영애가 송승헌과 함께 지난 11월 30일 강릉 시마크 호텔에서 열린 2016년 SBS 새 드라마 '사임당, the herstory(연출 윤상호·극본 박은령)'(이하 사임당)의 기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임당'은 이영애의 '대장금' 이후 10년 만의 복귀작으로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뜨거운 반응을 불러모으고 있다. 이날 역시 국·내외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이영애는 "500년 전에 살았던 여자의 삶과 고민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드라마를 통해 '여자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될 것 같다. 또 전세계인이 모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어 "신사임당이 5만원짜리에 박제된 고리타분하고 지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선입견을 깨부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신사임당의 삶을 재해석한 작품인 '사임당'에서 이영애는 한국미술사를 전공한 대학강사와 신사임당 1인 2역을 맡았다. 우연히 발견한 사임당의 일기와 의문의 미인도에 얽힌 비밀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다채로운 연기를 보여줄 예정이다.

> 신사임당이 그 시대의 예술가이자
> '워킹맘'이었던 것처럼 닮은 점이 많아서
> 인물을 더 잘 녹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영애는 과거 '대장금'에 출연해 아시아 전역에 한류열풍을 몰고 온 주인공이다. 이번 드라마 역시 여자의 일생을 담아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 모을 것으로 보인다.

"한류열풍 이전에 같이 울고, 웃고,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드라마를 통해 한복의 아름다움, 강원도의 절경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임당을 촬영하는 장소 오죽헌 역시 그녀에게 의미있는 장소다.

"오죽헌은 남편과 결혼 후에 '아기를 갖게 해달라' 기도한 장소이기도 해요. 이런 뜻 깊은 장소에서 촬영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아마 작품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드라마 촬영에 돌입하면서 '전업맘'에서 '워킹맘'이 된 이영애. 아이와 떨어져 있게 돼 걱정이 앞서는 건 아닐까 우려했지만, 100% 사전제작이라는 작업 환경 덕분에 한결 편한 표정이었다. 이영애는 "100% 사전제작이기 때문에 양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 고민이 없다"고 말했다.

송승헌과의 호흡에 대해서도 입을 뗐다.

"드라마가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데 과거 시대 이겸(송승헌)과의 로맨스가 너무 애틋해요. 그리고 승헌 씨가 정통사극은 처음인데 아마 제2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송승헌은 어린 시절 사임당과 운명적으로 만나 평생 그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이겸 역을 맡았다.

'사임당'은 지난 8월 촬영에 돌입했으며 내년 3월까지 마무리짓는다. 9월 한국과 중국에 동시 방송된다. 이영애가 '사임당'을 입고 활짝 웃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릉=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사진/뉴시스·연합뉴스

TV 하이라이트

MBC의 아들과 딸 특집

◆ MBC '라디오스타'

오후 11시 10분

'라디오스타'에는 MBC가 낳은 스타들이 총출동한다. '모스트스러운' 여배우 황석정과 '복면가왕'이 낳은 넘버원 보컬리스트 김연우, '진짜사나이' 김영철, 장수 리포터 박슬기, 훈훈한 외모로 여심 저격중인 배우 김민재가 출연해 입담을 과시한다.

KBS1	KBS2	MBC	SBS	JTBC	tvN	OCN	채널CGV
05:00 KBS 뉴스		05:00 MBC 뉴스	05:00 SBS 5 뉴스		05:20 명단공개 (재)	05:00 더 콜	
05:10 내 고향 스페셜		05:1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스페셜	05:10 굿모닝 510-생활의 발견		06:20 코미디 빅리그 Hot clip (재)		
06:00 KBS 뉴스광장	06:00 2TV 아침 1부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00 모닝와이드 (1~3부)	06:00 힐링의 품격 스페셜 (재)	06:4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재)	06:30 간첩	06:50 하치 이야기
07:50 인간극장	07:00 2TV 아침 2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7:00 쿵푸 공룡수호대 (재)			
08:25 아침마당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7:50 내일도 승리	09:10 좋은아침	07:30 JTBC NEWS 아침 &	08:30 집밥 백선생 (재)	08:30 크리미널 마인드 시즌10 (1~3회 재방송)	08:40 나도 영화감독이다 2
09:30 KBS 뉴스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10:00 S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9:40 여유만만	09:30 MBC 생활뉴스	10:30 SBS 생활경제	09:00 히든싱어 4 (재)	09:50 현장토크쇼 TAXI (재)		10:00 창문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10:55 별별가족	10:40 지구촌 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1:10 청담동 스캔들	10:50 최고의 사랑 (재)	10:50 풍선껌 (재)	11:30 나도 영화감독이다 2 (재)	
11:00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11:00 장사의 신 - 객주 2015 (재)	11:00 내 딸, 금사월 (재)	11:50 SBS 12뉴스	11:55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재)			
12:00 KBS 뉴스 12	13:00 다큐멘터리 3일 (재)	12:00 MBC 정오뉴스			12:10 풍선껌 (재)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4:00 KBS 뉴스타임	12:20 위대한 유산 스페셜	12:45 오! 마이 베이비 (재)	13:15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재)		13:00 건축학개론	
13:50 세계가 품은 한국의 미 (재)	14:10 세상의 모든 다큐 (재)	13:30 앙코르 창사기념 특집		14:35 JTBC 뉴스 현장	13:3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재)		14:10 런닝맨
14:00 청년 대한민국 벤처는 맛있다	15:05 후토스-잃어버린 숲 (재)	다큐멘터리 아리랑	14: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5:10 다이하드 4.0	
15:05 2015 코리언 지오그래픽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4:30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15:00 3시, 뉴스브리핑	15:50 4시 사건 반장	15:00 응답하라 1988 (재)		6:50 콜로니:지구 최후의 날
16:00 오늘의 경제	16:00 TV 유치원	15:00 MBC 뉴스	16:00 고향이 보인다				
16:10 다큐 공감 (재)	16: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재)	15:1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16:30 꾸러기 탐구생활		16:50 응답하라 1988 (재)	17:40 라스트 에어벤더	
17:00 KBS 뉴스 5	16:40 동물의 세계	15:55 프리파라	17:00 변신자동차 또봇	17:10 5시 정치부 회의			
17:20 시사진단	17:00 비타민 (재)	16:25 아름다운 당신 (재)	17:30 SBS 뉴스 퍼레이드				
		17:00 MBC 이브닝 뉴스					
18:00 6시 내고향	18:00 글로벌24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8:00 생방송 투데이	18:20 비정상회담 스페셜			
19:00 KBS 뉴스 7	18:30 2TV 저녁 생생정보 1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20 돌아온 황금복	19:40 연금복권 520	18:40 집밥 백선생 (재)	19:40 백악관 최후의 날	18:40 백발마녀전:명월천국
19:30 사람과 사람들	19:50 다 잘될 거야	19:55 MBC 뉴스데스크	20:00 SBS 8 뉴스	19:55 JTBC 뉴스룸			
20:25 우리 집 꿀단지	20:30 2TV 저녁 생생정보 2	20:55 아름다운 당신	20:55 영재발굴단		20:00 2015 Mnet Asian Music Awards (1~3회)		
21:00 KBS 뉴스 9	20:55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21:30 리얼스토리 눈		21:3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20:40 나도 영화감독이다 2
22:00 생로병사의 비밀		22:00 달콤살벌 패밀리	22:00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22:55 세계가 품은 한국의 미	22:00 장사의 신 - 객주 2015	23:10 창사특집 라디오스타	23:15 한밤의 TV연예	22:50 히든싱어 4 (재)		22:00 토르:천둥의 신	22:00 스타워즈2:클론의 습격
23:00 KBS 뉴스라인	23:10 추적 60분	24:30 MBC 뉴스 24					
23:40 문화빅뱅 더 콘서트	24:10 스포츠 하이라이트	24:55 창사기념 네트워크 우수작					24:40 페이스 오프
24:50 동행 (재)	24:35 세상의 모든 다큐	플랜트 오딧세이 꽃의 진화	24:35 나이트라인		24:30 비밀독서단 (재)	24:10 전설의 주먹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박용만이 그리는 두산의 미래

박 종 국 의 재계이야기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는 말이 있다.

진짜로 모든 걸 바꾼 그룹사가 있다. 바로 두산그룹이 그랬다. 1995년까지만 해도 두산그룹은 맥주·콜라·햄버거부터 김치에 이르기까지 자잘한 사업이 주력이었다. 이후 1996년 네슬레, 3M, 1997년 코카콜라·환타, 1998년 두산씨그램(위스키,소주), 2001년 OB맥주, 2009년 KFC, 소주, 종가집김치 등을 모두 팔아 치웠다.

박용만 회장은 대신 두산중공업(2001년 한국중공업 인수), 두산건설(2003년 고려산업개발 인수), 두산인프라코어(2005년 대우종합기계 인수), 2007년 밥캣(현재 두산인프라코어인터내셔널)등을 사들였다. 두산관계자에 따르면 박용성 전 회장의 강력한 지원도 한몫했다고 한다.

쉽게 말해 어제까지 학교 앞에서 제법 큰 마트를 운영하던 사장님이 안산 공단내 공장을 사들여 정밀기계를 만들어 수출을 하게 된 거와 같다. 두산그룹의 변신은 가히 충격이자 혁명이었다.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의 결정판 면세점 사업권까지 손에 넣으며 드라마는 절정에 올랐다.

전경련 역사(30대 재벌회사 가운데)에서 두산그룹처럼 주력을 몽땅 버리고 새로운 사업으로 탈바꿈한 회사는 없다. 그것도 남들이 다들 하기 싫어하는 정밀기계산업이 대부분이다.

두산의 변화는 박용만 회장이 1995년 그룹기획조정실장을 맡으며 변화의 막이 올랐다.

핀란드의 노키아가 종이펄프를 만들다가 휴대폰을 만들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는 소리는 들어봤지만, 두산의 변화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처럼 빠르고 숨 돌릴 틈이 없다.재계의 위상도 단번에 10위권으로 올랐다. 자잘한 사업만 하던 두산을 바라보는 재계의 시각도 180도 바뀌게 되었다.

두산의 강점은 어느 누구에게도 쏠리지 않는 가족경영과 지분 구성이다. 서구식 이사회를 가족으로 바꿔 놓은 독특한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어 냈다.

두 번째는 경영진의 독선과 아집을 견재할 수 있는 그룹회장 선출방식이다.

두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엔 연강재단과 3세대인 박용근, 박용성, 박용현, 박용만, 박용욱과 지분을 갖고 있는 4세(3세대 경영인의 자녀)들로 채워져 있다.

박두병 2대 회장의 자녀 때부터는 3세 경영인이 돌아가며 그룹의 회장을 맡아 오고 있다.

두산그룹은 2009년 주류 산업부문을 롯데에 매각하며 ㈜두산→두산타워, 오리콤, 두산베어스 두산동아 그리고 두산중공업을 지배하는 구조가 됐다.

특이한건 두산중공업이→ 두산인프라, 두산엔진, 두산건설, 두산에이엠씨를 계열사로 두는 모양새다. 박용만 회장의 두산그룹구조변화에 따른 남겨진 뒷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있다. 두산이 기업인수로 덩치를 키웠다면, 이제는 연착륙과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가 두산그룹에 덮쳤다. 소비재 사업을 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파도였다. 두산그룹의 대표 격인 두산중공업과 계열사의 매출이 줄기 시작했다. 두산중공업의 자회사들인 두산건설, 엔진, 인프라코어 등의 적자와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지 숙제다.

소비재를 할 때야 맥주·콜라·김치·햄버거를 팔던 뭘 하든 국민경제에 큰 영향이 없었다.

이제 두산그룹은 4만2600여명의 직원이 있다. 이중 2만1000여명이 해외 채용인력이다. 그룹의 중심인 두산중공업은 해외 수주 비중이 70%가 넘는다.

박용만 회장을 바라보는 세간의 시각도 국제적이 됐다. 그의 말 한마디가 외국언론에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다.

박 회장은 미국 유학파 재벌3세가 주로 하는 먹고 마시고하는 "폼 나는 사업"을 하지 않았다. 그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제조업, 그것도 중후장대 기계제조사업의 길을 선택했다. 요즘 젊은 사람 트렌드로 보면 미쳤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엔 간판기업이 있다. 독일의 지멘스, 벤츠와 미국의 GE, 보잉은 나라의 얼굴이자 기술의 상징이다.

박용만 회장은 "원천기술을 가진 회사가 있고, 적정한 가격에 나와 있다면 M&A를 통해 경영스피드를 끌어 올려야한다"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M&A"이라고 했다. 그는 유난히 모험정신과 창조적인 기질이 남다르다. 누구와도 얘기를 걸고 답을 한다.

박용만은 보스톤 유학시절 미국의 힘을 느꼈을 것이고 두산의 100년 역사를 비교해봤을 것이다.

우리가 가야할 길이 무엇인지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박용만의 변신이 무엇보다 기대된다.

〈객원논설위원〉

社說

농어촌 상생기금과 청년희망재단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도 조성된다.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모두 1조원이 조성된다. 애초 야당과 농민단체 등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이득공유제를 요구했다. 한·중 FTA 체결로 이득을 보는 산업의 이익 일부를 농수산물 등 피해산업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렇지만 정부와 재계는 반대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데다 FTA를 통해 기업 이익이 확대되고 세수도 증가하므로 재정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반론이었다. 반면 농민단체들은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를 끈질기게 요구했다. 결국 여야는 양자의 입장을 절충해 상생기금 조성에 합의한 것이다.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들 3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모두 시행되면 우리 농업과 농촌이 큰 타격을 받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를테면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마늘까지 무관세로 수입된다. 쌀이나 한우, 우유 등 주요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신음하는 농민들에게는 FTA폭탄까지 터진 셈이다 . 그러니 이럴 때 농민과 농업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없을 수는 없다.

재계의 주장대로 늘어나는 조세로 농민을 지원한다는 주장도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그런 원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나타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국가이익 증진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FTA폭탄 앞에 놓인 농민과 농촌을 지키려는 노력도 아울러 필요하다. 준조세라는 비판도 나온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또 준조세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인다. 마치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기에 박근혜 대통령과 주요재벌 총수들의 기부금으로 청년희망재단을 만드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 이제 상생기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용할지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여야가 어렵게 마련한 합의정신을 살려 상생기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응답하라 1988'의 이유있는 인기

기자 수첩

신 원 선 〈라이프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없었으면 좋겠다.' '응답하라 1988'에 대한 관심을 함축해 표현한 것이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지금 전국민은 '응답하라 1988'에 푹 빠져 있다.

지난달 28일 방송된 tvN 코믹가족극 '응답하라 1988' 8화 '따뜻한 말 한마디' 편은 유료플랫폼 가구 평균 시청률 12.2%, 최고 시청률 14%를 기록하며 케이블, 위성, IPTV 등 통합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응답하라' 시즌 전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시청률이다.

특별함과 화려함은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촌스럽기까지 한데 이토록 큰 인기를 끄는 요인은 무엇일까.

'응답하라 1988'은 2012년 '응답하라 1997'을 시작으로 '응답하라 1994'(2013)에 이은 세번째 '응답하라' 시리즈다. 1988년 서울 쌍문동을 배경으로 골목친구 5인방의 아날로그 우정과 사랑, 그들의 가족 이야기를 따뜻하게 그린 작품이다.

반지하에 살지만 기죽지 않는 덕선(혜리)의 가족, 겉으로는 툴툴대지만 속깊은 정환(류준열)네 집, 조용한 바둑천재 택(박보검)과 그의 홀아버지 등 우리 주위에 있을 법한 평범한 소시민들의 가족 이야기가 향수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드라마 속에서는 평상에 걸터앉아 소소한 잡담을 나누며 함께 저녁 반찬을 준비하는 동네 아줌마들, 저녁마다 친구네 집에 모여 라디오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듣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웃 간에 반찬과 연탄을 빌려주는 건 물론, 울고 웃는 작은 사건들 면면을 함께 나눈다.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고 골목이 사라진 요즘 시대에 1988년 쌍문동 골목은 젊은이들에게 환상 그 자체다. 학교, 학원, 과외를 오가며 철저히 개인주의와 성과주의 사회를 살고있는 요즘 세대들에게 함께 나고 자란 동네 친구는 어떤 의미일까.

대중은 '응답하라 1988' 속 쌍문동 5인방과 그의 가족들을 보고 위로받는다. 각박한 디지털 시대에 투박하지만 인간미 넘치는 아날로그식 우정과 사랑이 따뜻함을 안겨준다. 모두가 기대하지 않았던 세 번째 시리즈가 빛나는 이유는 신원호 PD가 되살린 과거의 정서 재현이다. 이제는 일상적이지 않게 된 1988년도의 일상이 현세대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tree6834@metroseoul.co.kr

PESU? PP? PPSU? 젖병소재 알고 쓰세요

소비자119

내열성·투명도 등 달라
생활 습관 고려해 선택

출산을 앞둔 예비부부들은 카시트나 유모차 선택에 신중하다. 승용제품은 아이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깐깐하게 고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젖병은 어떨까. 자주 사서 쓰고 폐기할 수 있어 비교적 덜 신경을 쓰는 품목 중 하나다. 그러나 젖병의 소재를 잘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육아가 한결 수월해진다.

젖병을 고를 때는 본인의 생활습관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젖병 선택 시 환경호르몬 방출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같은 플라스틱소재라도 모두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건 아니다. PESU(폴리에스테르설폰), PP(폴리프로필렌), PPSU(폴리페니설폰) 등은 플라스틱이지만 환경호르몬 걱정이 없는 소재다.

PESU는 내열성이 좋은 유리와 내구성이 좋은 플라스틱의 장점을 모은 신소재로 PPSU보다 저렴하다. 그러나 반투명한 갈색이기 때문에 분유를 탄 후 침전물을 확인하기 어렵다.

PP는 가장 저렴한 젖병소재다. 고온에 변형이 되지 않고 가볍다. 다만 흠집이 나기 쉽고, 투명도가 떨어지는 단점이다. 이로인해 PP는 2~3개월마다 교체가 필요하다. 젖병을 자주 바꾸고 싶다면 PP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PPSU는 의료기구에 사용하는 특수 플라스틱 소재다. 가볍고 내구성이 높으며 200도 고열에도 변형이 없을만큼 내열성이 뛰어나다. 그러나 가격이 높다.

/유현희 기자 yhh120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쇄 인 송 필 호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인사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 ◇전무 △후판사업본부장 제국환 △냉연사업본부장 임동규 ◇상무 △미국법인장 김재붕 △기술담당 임병문 ◇전보 이사 △윤리경영팀장 박규홍 〈인터지스〉 ◇이사대우 △기획관리실장 이상석 ◇상무 △영업담당 정원우 ◇이사 △하역담당 이상열 ◇전보 △상무 경인지사담당 박동호 △이사대우 운송담당 김동석 〈국제종합기계〉 ◇상무 △영업담당 김동익 〈DK UIL〉 ◇상무 △베트남법인장 박기원 ◇이사 △천진법인장 길기석 △생산기술본부장 박민석 〈DK UNC〉 ◇이사 △IT서비스사업본부장 김오련 ◇이사대우 △경영지원본부장 오용석 〈페럼인프라〉 ◇사장 △고문성

◆삼천리그룹 ◇승진 (㈜삼천리) △ 상무 신현우 전병철 △ 이사대우 김정태 박용복 ((㈜삼천리 ENG) △ 상무 유태봉 ◇ 보직 (㈜삼천리) △ 사업본부 대표이사 강병일 부사장 △ 전략본부장 손원현 부사장 △ 지원본부장 안민호 전무 △ 전략담당 길형도 전무 △ 기획본부장(직무대행) 겸 재경담당 박무철 상무 △ 인천지역본부장 윤양노 상무 △ 기술담당 차봉근 상무 △ 광명열병합사업단장 김치완 상무 △ 감사담당 허정훈 상무 △ 남부지역담당 신현우 상무 △ 서부지역담당 김원중 이사 △ 마케팅담당 현운식 이사 △ 중부지역담당 조성용 이사대우 △ 사업관리담당 김정태 이사대우 △ 스포츠단장 박용복 이사대우 (㈜삼천리 ES) △ 대표이사 유재권 부사장 △ 경영지원본부장 송화종 전무 △ EPC사업본부장 이완상 상무 〈㈜삼천리 ENG〉 △ 대표이사 정희돈 전무 △ 경영지원본부장 유태봉 상무 〈㈜휴세스〉 △ 대표이사 전상호 상무

◆녹십자홀딩스 〈녹십자홀딩스〉 △ 전무 장평주 △ 상무 장애경 〈녹십자〉 △ 전무 김경조, 이민택 △ 상무 허기호 〈녹십자엠에스〉 △ 상무 이의섭 〈녹십자이엠〉 △ 사장 이영찬 △ 전무 윤원태 〈녹십자헬스케어〉 △ 전무(대표) 전도규 〈녹십자랩셀〉 △ 전무 박종섭 △ 상무 박순영 성필석 (인백팜) △ 부사장 정문호 (녹십자(중국) 생물제품유한공사) △ 전무 김창섭 ◇ 녹십자웰빙 △ 상무 김상현 (녹십자의료재단) △ 상무 이상곤 (녹십자아이메드) △ 상무 우병호

◆ING생명 ◇임원 선임 △ 상품부문 부문장(상무) 노동욱

◆한화손해보험 ◇부문장 이동 △ 자동차보험 김영준 ◇본부장 이동 △ 장기보상 김규하 △ 강남지역 김남옥 △ 경인지역 우용호 △ 방카사업 정차용 △ 기업영업1 정진선 ◇팀장 이동△ 자산운용기획 심명준 △ 소비자보호 전정표 △ 인사 서준호 △ 법무 장은서 △ 메디컬 안성수 △ 감사 김희갑 ◇ 지역단장 이동 △ 경기북부 윤상헌 △ 강서 박상길 △ 강남 이택기 △ 성남 박정훈 △ 제주 신창헌 △ 인천 홍승남 △ 충남 이명수 △ 충북 전영철 △ 광주 박윤수 (부장 이동) △ GA영업4 김지형 △ 방카영업1 천일구 △ 방카영업2 이응인 △ 국공영업 김성훈 △ 건설영업 박승준 (센터장 이동) △ 장기U/W 홍성출 △ 자보U/W 장석원 △ 충청보상 서영태 ◇ 파트장 이동 △ 장기클레임조사 TFT 박상준 △ 보험수리 박형준 △ IFRS Phase II 추진 이재현 △ 마켓이노베이션 유석용 △ 마케팅기획 설인수 △ 인사 서익준 △ 법무 서주희 △ CS추진 홍상기 △ 소비자정책 이창수 △ 상품전략 이명균 △ 장기SIU 노재민 △ SIU 진태용 △ 혁신 양석모 △ 영업교육 박정인 △ 전략영업지원 안광진 △ 방카사업본부마케팅 김수찬 △ 신규프로젝트 안성모 △ 강남지역본부마케팅 황윤환 △ 경인지역본부마케팅 김용현 △ 충청지역본부마케팅 김영수 △ 호남지역본부마케팅 윤건식

◆아주캐피탈 ◇본부장 △ 기업금융본부장 김병준 ◇본사 팀장 △ 투자금융 강문성 △ 준법감시 김형준 ◇본사 팀장 전보 △ 노사협력 김도훈

◆한화생명 ◇본사 부문장 전보 △ 영업 윤병철 △ 투자 권희백 ◇본사 본부장 전보 △ B2B영업본부장 백종헌 △ 고객지원실장 박상빈 △ 투자전략실장 박상욱 △ 전략기획실장 김현철 △ 전사혁신실장 엄성민 △ 퇴직연금담당 김광성 ◇본사 팀장 전보 △ CPC전략 나주호 △ 영업교육 홍성범 △ GFP사업부장 소방섭 △ GA사업부장 김현상 △ 방카슈랑스사업부장 고병구 △ 보험심사팀장 김상주 △ 인사팀장 문희수 △ 경영기획팀장 박호진 △ 재정팀장 한영만 △ 신규사업팀장 정인섭 △ 디지털팀장 김종민 △ 감사팀장 문정근 ◇지역본부장 전보 △ 강북 정주성 △ 경인 조진희 △ 중부 이경근 △ 호남 민정기 △대구 오세창 △부산 김선구 ◇지역단장 전보 △ 의정부 이경섭 △ 동부광진 김정욱 △ 강남 박종선 △ 송파 정석식 △ 인천 문상직 △ 동수원 김태완 △전북 정두석 △ 전주 박인서 △ 구리 조종웅 △ 광주 이창주 △ 달서 박성수 △ 수성 심재읍 △ 신울산 이승제 △ 창원 박상호 △ 부산거제 오준석 △ GFP영남 강종수 △ GFP수도 임달규 △ GFP중부 한승의

부고

▲ 이성채씨 별세, 이진복(국회의원)씨 부친상 = 1일 낮 12시 57분, 부산 동래구 사직동 아시아드장례식장 3층 VIP실, 발인 4일 오전 7시. 051-503-0770

▲ 김명심씨 별세, 임홍근(전 한국석유공사 부사장)·성식(자영업)·상근(자영업)씨 모친상 = 11월 30일 오후 8시, 안양 평촌 한림대성심병원장례식장 VIP 2호실, 발인 3일 오전 6시, 031-382-5004

▲ 김영택씨 별세, 김재옥(동양일보 기자)씨 조부상 = 1일 오전 0시 21분, 충북 충주시 충주병원 장례식장 특 201호, 발인 3일 오전 7시. 043-845-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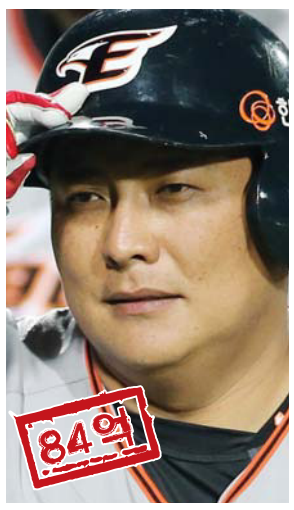
가을야구 위해 한화 200억 베팅

고삐 풀린 FA… 구단들도 희비

김태균 잡고 정우람·심수창 영입
투·타 안정화에 선수 사기 북돋아

롯데, 신동빈 지원에 마운드 보강
NC, 용병 3인에 박석민 '월척'도

넥센·SK·삼성, 전력누수에 울상



김태균

심수창

정우람

198억원, 138억원, 96억원.

1일 현재 한화 이글스, 롯데자이언츠, NC 다이노스가 자유계약선수(FA) 영입에 쓴 비용이다.

FA 영입에 나선 구단들이 통큰 베팅을 시작했다.

올해 FA 시장에는 투수, 타자 모두 '대어'가 많은 만큼 각 구단에서는 초반부터 과감한 승부수를 던지며 전력강화에 나섰다.

올 시즌 부진했던 한화이글스와 롯데자이언츠는 내년 시즌이 기대된다. 거물을 영입하는데 성공하면서 팀 전력보강은 물론 선수들의 사기까지 높였다.

가장 큰 베팅액을 쓴 한화는 FA 시장 팀내 간판스타인 김태균과 조인성을 붙잡는데 성공했다. 각각 4년 84억원, 2년 10억원을 쏟아부었다.여기에 SK의 좌완투수 정우람을 4년 84억원이라는 불펜 최고액으로 영입했다. 또 롯데 투수 심수창도 4년 13억원에 영입해 마운드를 강화했다. 4명을 잡는데 한화가 쓴 금액은 191억원에 달한다.

한화가 큰 한방을 질러 대어들을 낚았다면 롯데는 가성비(가격대비 성능 비교)가 뛰어난 선수들을 쓸어 담았다. 특히 이번 FA영입은 투수진 보강에 초점을 맞춰 취약점으로 평가되는 마운드의 내실을 다졌다. 롯데는 송승준을 4년 40억원으로 잔류시킨 뒤, SK 윤길현을 4년 38억원에, 넥센의 마무리 투수 손승락을 4년 60억원에 영입했다. 총 138억원 규모다.

롯데는 그동안 FA의 주인공보다 단역에 만족하는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달라졌다. 이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NC다이노스는 야수 최강으로 꼽히는 박석민을 영입하는데 4년 최대 96억원(보장액 84억원·옵션 10억원)을 제시했다. 선수 한명을 잡는데 쓴 비용이 100억원 골이다. 올해 정규시즌 2위로 시즌을 마감한 NC는 내년 가장 화끈한 방망이쇼가 기대되는 팀이다. 나성범, 에릭 테임즈, 이호준에 박석민까지 가세한 NC의 중심타선은 10개 구단 중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한화, 롯데, NC가 월척을 낚는 동안 기존 선수들을 수성하지 못하고 떠나보내야 하는 씁쓸한 구단들도 생겨났다.

넥센 히어로즈와 SK 와이번스는 주요 내부 FA 선수들이 이탈하면서 당장 내년 시즌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

넥센은 외야수 이택근과 투수 마정길을 각각 4년 35억원, 2년 6억2000만원에 눌러 앉히는데 성공했지만 마무리 손승락과 '안타왕'인 외야수 유한준을 떠나보냈다. 유한준은 4년 60억원을 제시한 신생구단 케이티 위즈로 자리를 옮겼다.

여기에 박병호의 메이저리그 진출로 인한 공백도 위기다. 넥센은 '홈런왕' 박병호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고 투수인 앤디 밴 헤켄마저 일본프로야구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어서 전력 자체가 흔들릴 위기다.

SK는 리그에서 가장 많은 6명의 FA를 배출했지만, 내야수 박정권(4년 30억원), 투수 채병용(2+1년 10억5000만원)을 잡는데 만족해야 했다. 마무리 정우람과 핵심 불펜 윤길현의 이적은 SK의 내년 시즌을 막막하게 하는 요인이다. 또 든든한 안방마님인 포수 정상호(4년 32억원)를 LG로 떠나 보낸 것도 뼈 아픈 한방이다.

도박 파문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삼성도 박석민의 공백 후폭풍이 예상된다. '도박 파문'으로 마무리 투수 임창용을 방출했고, 윤성환과 안지만도 내년 시즌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현재 FA 시장에서는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두산 베어스의 김현수를 비롯해 고영민, 오재원(이상 두산), 박재상(SK)이 미계약자 신분으로 남았다.

/유현희 기자 yhh1209@metroseoul.co.kr

오늘의 날씨

해뜸/07:28 | 해짐/17:14

12월 2 일
수요일 (음력 10월 21일)

수도권 아침부터 비… 오후엔 전국 확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아침에 서울·경기도에서 비가 시작되어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밤에는 경상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서쪽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	기온(℃)	오전 강수확률(%)	오후
춘천	2/8	60	70
강릉	7/15	30	30
세종	3/10	20	70
대전	3/12	60	70
청주	4/10	60	70
광주	6/12	60	70
전주	6/12	30	80
목포	7/12	30	70
제주	10/17	30	60
대구	4/13	30	70
창원	8/14	30	70
포항	7/15	30	70
부산	11/17	30	70
울릉	8/13	3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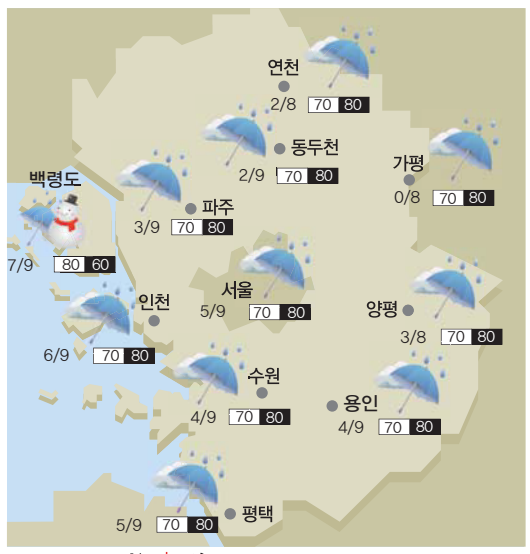
수도권 날씨

9 ~ 5 ℃

체감온도	
피부질환 가능지수	
감기 가능지수	
천식-폐질환 가능지수	

밀물과 썰물

지역	밀물	썰물
부산	00:09/12:28	06:14/18:39
인천	08:45/21:12	02:57/14:55
울산	11:17/ - : -	05:29/17:38
군산	07:10/19:41	01:49/13:39
목포	06:12/18:52	11:23/ - : -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박병호 "배트 던지기? 빈볼 때문에 안 할것"

美서 '미네소타 입단' 뜨거운 관심
지역 언론, 온라인에 인터뷰 실어

미네소타 트윈스와 연봉협상을 위해 방미중인 박병호(29)가 현지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미네소타 지역지 스타트리뷴은 1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프로야구 미네소타 트윈스 입단을 앞둔 박병호의 인터뷰 기사를 온라인에 게재했다.

스타트리뷴은 박병호가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 류현진(28·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등 메이저리그 선배들에게 많은 조언을 구했다고 보도했다.

메이저리그 선배인 이들은 박병호에게 "너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병호는 넥센 히어로즈에서 한솥밥을 먹은 강정호와 두터운 친분을 자랑한다.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는 박병호(넥센 히어로즈)가 지난달 29일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호는 "강정호에게 메이저리그가 어떠냐고 물었더니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펼치는 최고의 야구다. 형도 재미있을 것'이라고 하더라"며 "한 달 정도 지나면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덕담을 해줬다"고 말했다.

한편 스타트리뷴은 미네소타 팬이 박병호의 '배트 플립'(홈런 후 배트 던지기)을 기대하고 있다는 소식도 담았다. 박병호를 비롯한 한국 선수들의 배트 플립 영상은 미국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배트플립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돼 다음 타석 때 빈볼 등으로 보복을 당할 수 있다.

박병호는 미국에서도 배트 플립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빈볼때문에 안된다는 제스추어를 하며 너스레를 떨었다고 스타트리뷴은 전했다. /유현희 기자

KLPGA가 4개국 여자 프로 골프투어 대항전 더퀸즈에서 우승컵에 도전한다. 이보미가 팀을 진두지휘하며 전인지, 박성현, 조윤지 등도 팀에 합류한다. /연합뉴스

4개국 골프 여제 가린다

4~6일 女프로투어 대항전 '더 퀸즈'
이보미·박성현·전인지 등 9명 출전

박성현

전인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가 4개국 여자프로 골프 투어 대항전 '더 퀸즈'에서 우승컵에 도전한다.

이번 대회는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며 한국(KLPGA)과 일본(JLPGA), 유럽(LET), 호주(ALPG) 투어 선수들이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의 미요시컨트리클럽(파72·6500야드)에서 최강자를 가린다.

1999년부터 시작한 한·일전이 발전해 올해 처음 열리는 이 대회에는 해당 협회 국적 선수만 출전할 수 있다. 팀당 9명씩 총 36명이 출전하며 1라운드 포볼(2명이 한 조로 각자의 공으로 경기), 2라운드 포섬(2명이 한 조를 이뤄 공 한 개로 경기)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3라운드는 전원이 싱글 매치플레이를 벌인다.

승리하면 3점, 무승부는 1점, 패배 시는 0점이 부여된다. 총상금은 1억 엔으로 점수를 합산해 우승한 팀에게는 4500만 엔이 주어진다.

KLPGA에서는 올해 투어 상금 랭킹 상위 선수들이 주요 멤버로 나선다. KLPGA 투어 상금·다승왕 등 4관왕에 오른 전인지(21·하이트진로)를 비롯해 시즌 3승과 함께 상금 순위 2위인 박성현(22·넵스)을 필두로 조윤지(24·하이원리조트), 이정민(23·비씨카드), 고진영(20·넵스, 배선우(21·삼천리), 김민선(20·CJ오쇼핑)도 합류한다. 여기에 추천 선수로 합류한 김세영(22·미래에셋)이 가세한다. JLPGA 투어 6승에 빛나는 이보미(27)가 팀을 진두지휘한다. 이보미는 일본투어 사상 최초로 상금 2억 엔을 돌파했다. /유현희 기자

메시, 스페인 축구 '전설'로 우뚝

LFP 라리가 어워드 6번째 MVP 수상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사진)가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이라리가 최고의 선수로 선정됐다. 이번이 여섯번째 수상이다.

메시는 1일(한국 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14-2015 스페인프로축구연맹(LFP) 라리가 어워드에서 MVP로 선정됐다.

메시는 이 상이 수여된 7년동안 지난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에게 한차례 양보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MVP를 차지했다. 지난 시즌 바르셀로나의 트레블(정규리그·국왕컵·UEFA 챔피언스리그)을 이끈 메시는 최우수 공격수상까지 거머쥐었다.

바르셀로나는 명문답게 메시 외에도 3명의 수상자를 추가로 배출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최우수 감독상을, 네이마르가 최우수 아메리카 선수상을, 클라우디오 브라보가 최우수 골키퍼상을 각각 수상했다. 메시의 라이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는 팬 투표로 선정한 '팬즈 파이브스타 선수상'으로 만족해야 했다. /유현희 기자

고품질 싼가격… 커피전문점들의 변신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추는 커피전문점들이 늘고 있다. 커피 전문점들이 경쟁적으로 가성비(가격대비 성능 비교) 높이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토프레소가 대표적이다. 토프레소는 '당일주문, 당일배전, 당일발송'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커피 프랜차이즈다. 본사에서 직접 로스팅 공장을 운영해 신선한 상태의 원두를 전국 가맹점으로 빠르게 배송하는 것이 장점이다. 샌드위치도 냉동 상태의 완조리 제품을 본사에서 제조해 보내는 대신 고객이 주문하는 즉시 매장에서 직접 만든다. 'Made in our kitchen'라는 모토를 철저히 지키고 있는 셈이다.

대용량 커피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며 직장인들에게 높은 인기를 모으는 곳도 있다. 매머드커피는 1ℓ의 아메리카노를 40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 일반 커피 브랜드에 비해 양이 많아 '하루 종일 마실 수 있는 커피'로 불리기도 한다. 1ℓ의 아메리카노에 커피 원액 4샷을 넣어 품질까지 고려했다. 시럽과 아몬드 슬라이스를 넣은 '아몬드 아메리카노', 티라미수 케이크와 라떼를 조합한 '카페 드 티라미수' 등 독특한 메뉴들도 갖췄다.

토프레소, 직접 로스팅해 고객잡기
매머드커피의 '1리터 전략'도 통해

고품질, 저가격의 커피 브랜드들이 인기를 얻자 매일유업의 커피 브랜드인 폴바셋은 최근 커피 가격을 최대 20% 내리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폴바셋 측은 보다 품질 좋은 커피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커피 가격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대신 커피의 품질은 높였다. 매일유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라떼 메뉴의 경우 저지방, 무지방, 소화가 잘 되는 우유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기농 제품인 상하목장 우유로 만든 밀크 아이스크림도 폴바셋의 대표 메뉴 중 하나다.

"합리적 가격대로 고퀄리티 커피를, 한동한 핵심트렌드로 자리잡을 것"

프리미엄 커피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브랜드도 생겨났다. 띠아모커피는 미국스페셜협회(SCAA)의 국제 전문가들이 인정한 전 세계 5% 미만의 최고급 스페셜티 커피 원두를 사용한다.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등 5~6가지의 원두 중 원하는 것을 골라 즉석에서 내린 프리미엄 싱글오리진 커피를 즐길 수 있다. 최상 품질의 커피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다른 프리미엄 매장과 차별화를 꾀하며 꾸준하게 매장을 확대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자들의 지갑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합리적인 가격대로 고퀄리티 제품을 제공하는 커피 전문점을 찾는 이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트렌드는 위축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소비심리를 자극해 한동안 커피업계의 핵심 트렌드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metroseoul.co.kr

C급 상권서 A급 매출 올리는 비결은요~!

오늘통닭 의정부 호원점의
김병수·이정미 부부

"첫 창업일수록 장수브랜드 택해야 메뉴 노하우·경쟁력 갖출수 있어, 40년된 '오늘통닭' 택한 것이 신의 한수"

"첫 창업일수록 브랜드 선택이 중요하다." "오랜 역사를 지닌 브랜드일수록 가맹점주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

창업자들이 장수 프랜차이즈를 선호하는 이유다.

김병수(45), 이정미(33) 부부도 지난 2월 생애 첫 창업에 도전했다. 부부는 반짝 인기에 편승한 브랜드보다 메뉴에 대한 노하우와 경쟁력이 있는 장수 브랜드를 첫 창업 파트너로 선택했다. 부부가 고심 끝에 고른 브랜드는 옛날통닭 프랜차이즈 브랜드 '오늘통닭'이다.

이 씨는 "창업이 처음인데다가 목이 좋지 않은 매장을 확보한 터라 고민이 많았죠. 상권이 약하다면 브랜드와 아이템 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라고 브랜드 선정 이유를 밝혔다.

오늘통닭은 서울 수유동에서 1977년 문을 열어 30년 넘게 운영한 '삼성통닭'을 전신으로 삼은 브랜드다. 역사만 39년이다.

이들이 운영하는 의정부 호원점(사진)은 운영한 지 월 평균 2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 수익성도 높다. 소위 A급도, B급도 아닌 상권이어서 월 임대료는 총 매출의 10%도 되지 않는다.

이들은 본사에서 받았던 조리 교육 매뉴얼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식자재 사용 원칙을 준수하는 것을 꾸준한 매출의 비결로 꼽았다. 오늘통닭은 모든 식재료를 '당일 구매, 당일 소비'를 원칙으로 한다.

이들 부부가 본사의 매뉴얼에만 의존한 것은 아니다.

부부는 신선한 생맥주를 제공하기 위해 맥주통 내부를 매일 청소한다. 한번 청소할 때마다 1000cc를 버려야 하기에 대부분의 점주들은 매일 청소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한달이면 3만cc가 버려지는 셈이니 한푼이 아쉬운 자영업자들이 쉬이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법도 하다. 배달주문시 손글씨로 쓴 감사의 메시지를 치킨과 함께 포장하는 감성 마케팅은 부부만의 경쟁력으로 자리잡았다.

"상권이 나쁘다고 다들 성공하기 어려울 거라고 했죠. 좋은 상권에서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도 있잖아요. 결국 창업은 점주가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저희는 상권보다 점주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증명해 나갈 겁니다."

부부는 실패한 창업자들이 반복하는 본사탓, 상권탓, 아이템 탓 등 남탓이 부질없다며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한다.

/유현희 기자

창업단신

▲ 카페베네 베이글 이벤트

카페베네가 베이글 콘셉트 매장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베이글크리스마스'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25일까지 진행한다. 베이글 콘셉트 매장에서 베이글을 먹고 인증샷을 찍어 '#베이글크리스마스'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면 응모할 수 있다. 1등 당첨자(1명)에게는 애플의 최신 아이폰 시리즈 6S 2개를 증정한다.

▲ 던킨도터츠 화·수요일 할인

던킨도너츠가 12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각각 '이탈리안 햄치즈 와플 콤보'와 '기프트 팩'을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콤보 화요일', '해피 수요일'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화요일에는 이탈리안 햄치즈 와플콤보를 2900원에 수요일엔 '화이트 후로스티드' 3개와 '던킨 글레이즈드' 3개로 구성된 기프트팩을 3900원에 즐길 수 있다.

▲ 하누소 '명품 육회비빔밥' 출시

한식 레스토랑 브랜드 하누소가 신메뉴로 한우육회비빔밥을 출시했다. 하누소 명품 육회비빔밥은 신선한 한우 육회에 새싹채소와 각종 나물 등을 더해 육회의 부드러움과 아삭한 식감을 살린 메뉴다.

▲ 남자의청춘 신논현점 24시간 운영

분식 브랜드 남자의 청춘이 분식 브랜드 최초로 24시간 운영을 시작한다. 남자의 청춘은 12월부터 남자의 청춘 신논현점을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자의 청춘은 100% 쌀가루를 사용한 바삭한 튀김과 떡볶이, 불닭볶음우동 등 분식 메뉴를 선보인다. 1899-1791

▲ 자연의벗 '응답하라 주사위' 이벤트

천연화장품 브랜드 자연의벗은 매주 '응답하라 주사위' 이벤트를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한다. 주사위 숫자인 1부터 6까지 원하는 숫자 두 자리를 ㈜자연의벗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에 댓글로 남기면 응모가 완료된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응모를 받아 금요일마다 당첨자를 발표한다. 02-722-1400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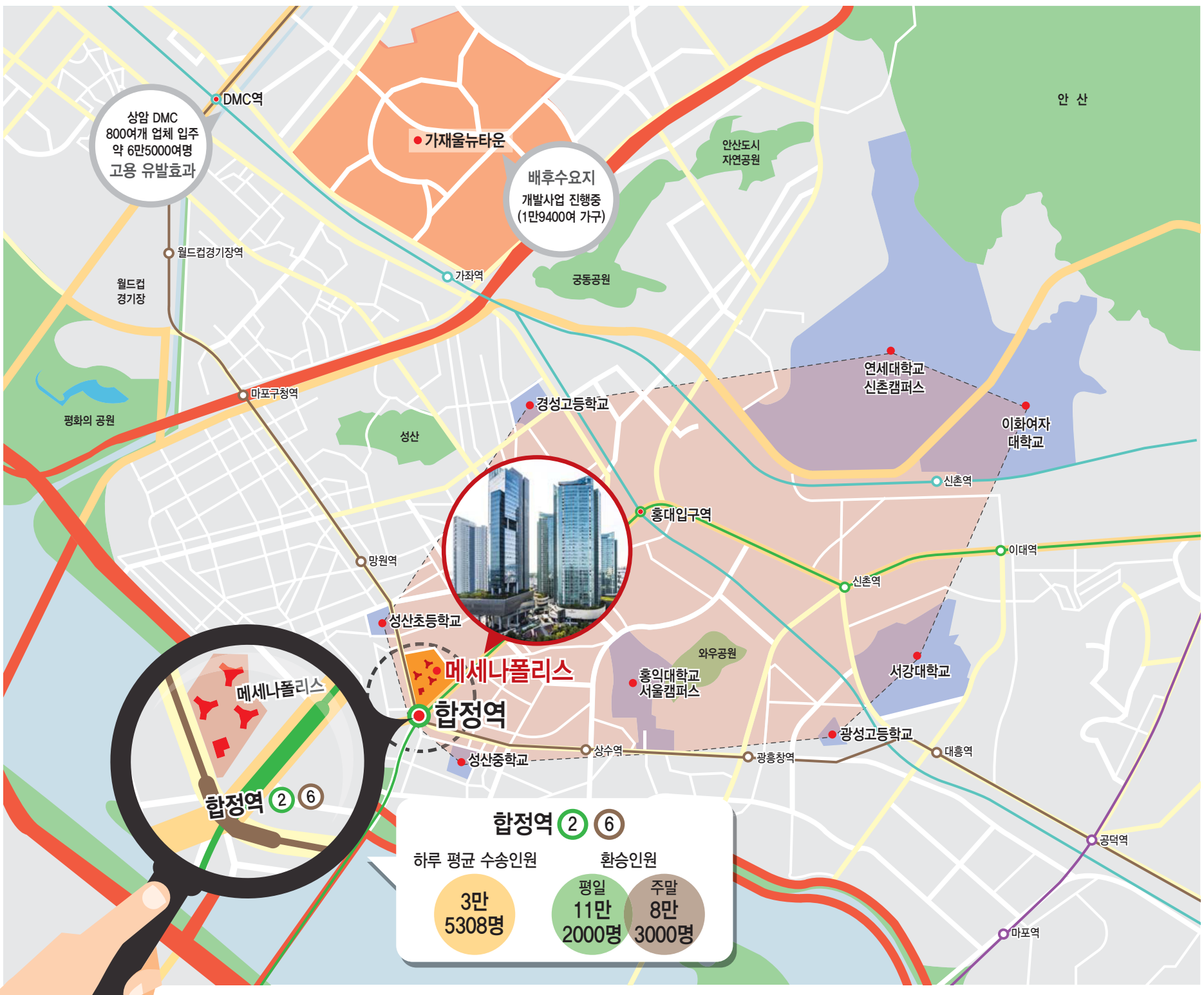
metro® Life

제3354호 2015년 12월 2일 수요일

[라이프]
'대장금' 벗고
'사임당' 입은
이영애
16

연재만화

14



'강북 랜드마크' 메세나폴리스

지하철을 읽으면 부동산이 보인다

① 합정역 메세나폴리스

역세권에 복합 상권 갖춰 '수요층 눈길잡기' 성공

'예비수요' 가재울 뉴타운에 인근 연세·서강대도 호재로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과 집값의 상관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지하철 개통 후 역사를 중심으로 신흥 상권이 형성되고 각종 개발 호재 등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명품 학군과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갖춘 곳은 실수요자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상권과 메세나폴리스를 들 수 있다. 합정역 상권은 지하철 2호선과 6호선이 연결된 환승역으로 유동인구가 풍부하다.

1일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합정역 지하철 하루 평균 수송 인원은 3만5308명에 달한다. 환승역 환승 인원은 평일 11만2000명, 주말 8만3000명에 이른다. 여기에 양화로·합정로·대흥로, 기타 6차선 도로, 5차선 도로가 상권에 걸쳐 있어 교통 여건이 우수하며 대형복합 상권인 메세나폴리스를 품고 있다.

메세나폴리스는 쇼핑과 문화, 여가생활을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는 복합단지로 아파트 외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영화관 등 대규모 상업시설이 단지 내에 있다. 대규모 복합 상권에 개발 호재도 잇따른다. 인접한 상암DMC에는 800여개의 업체가 입주하게 되며 약 6만5000여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또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재울뉴타운 1만9400여 가구와 아현뉴타운 1만8500여 가구도 가까워 향후 이곳까지 배후 수요지로 품을 수 있다. 이외에도 주변에 성산초와 성산중, 경성고, 광성고 등의 학군을 갖추고 있으며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이 근처에 있다. 미국 뉴욕의 명문사립학교 분교인 '서울 드와이트 외국인 학교'도 가깝다. 프리미엄이 붙는 이유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를 살펴본 결과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메세나폴리스 전용면적 122㎡는 지난 9월 12억7000만~14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9월 기준 합정역과 도보 11분 거리의 광남벨라스(1차)(2004년 입주) 전용면적 121㎡가 5억 8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합정역이 지하로 연결돼 있는 메세나폴리스에는 입주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초역세권 아파트 프리미엄이 붙은 것을 알 수 있다.

합정역과 홍대입구역이 있는 마포구 서교동의 다른 아파트에서 메세나폴리스 프리미엄은 확인할 수 있다.

홍대입구역과 도보 6분 거리의 서교푸르지오(2004년 입주) 전용면적 92㎡는 5억9900만원에 거래됐지만 합정역과 도보 15분 거리의 두명이지안(2005년 입주) 전용면적 84㎡은 4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합정역과 도보 17분 거리의 센트레(2002년 입주) 전용면적 81㎡은 3억5500만원에 거래됐다.

합정역과 가까운 홍대 권역도 상가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소상공인상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홍대입구역 일대 상가의 월 임대료는 1㎡당 3만2541원으로 전분기 대비 15.1% 상승(1층, 활성화 지역 기준)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